BARUN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Peter Singer, Ethics in the Real World · Vol. 8 GLOBAL PROBLEMS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The Refugee Dilemma · Paris and the Fate of the Earth · Greta Thunberg
원서 PDF 177~179 · 182~186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권은 한 가지를 묻는다 — "국경 너머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가."

이 권은 국경 밖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세 편을 묶었다. 「The Refugee Dilemma」에서 저자는 망명권에 상한이 없다던 메르켈이 2018년에 국경 통제 강화에 동의한 데서 권리에도 결국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끌어낸 뒤, 가까운 나라의 안전한 난민 캠프와 부유국의 더 많은 수용이라는 해법을 내놓는다. 「Paris and the Fate of the Earth」는 리우에서 파리, 글래스고까지 기후 협상을 따라가며 각국의 서약으로는 2℃를 넘을 위험을 막지 못한다고 보고, 항공사의 비유로 그런 위험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Greta Thunberg's Moment」는 툰베리의 유엔 연설에서 출발해 부유국의 배출을 러시안룰렛에 빗대고, 정부를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면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될 것이라고 본다. 세 편을 이어 읽으면 누가 문제를 일으켰고 누가 그 대가를 치르는가라는 물음이 국경을 넘어 되풀이된다. 저자의 결론과 저자가 소개한 정치인 · 활동가의 말을 가려 적었고, 이 노트는 어느 쪽도 권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원서를 옆에 펴고 네 눈으로 먼저 찾아 기호로 표시하고 그 까닭을 한 줄로 적어 두어라.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세 편을 잇는 자리)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은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으로 표시합니다. 에세이 제목은 단락으로 세지 않습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권의 세 편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권리에는 결국 한계가 있어야 한다(178쪽 ¶4) / 가까운 나라의 안전한 캠프 – 밀입국 알선을 없애고 캠프의 사람들에게도 희망을(179쪽 ¶1~¶2) / 2℃를 넘을 10%의 위험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항공사 비유(183쪽 ¶2~¶3) / 정부를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면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될 것(186쪽 ¶4~¶5)
4~5	**밑줄 함축 의미**	knows no upper limit / Wir schaffen das / not Merkel the idealist, but Merkel the political realist / in the last resort, rights must have a limit / a well-coached migrant / They too need to be given hope / hung in the balance / went unheeded / if not many times higher / How dare you? / a kind of Russian roulette / two bullets rather than just one / where we draw the line
6	지칭 추론	① their만 개발도상국, 나머지 their · They는 부유국으로 갈리는 183쪽 ¶4 / She · this(177쪽 ¶3 = 메르켈 · 망명권) · they(178쪽 ¶3 = 인도적으로 대하려는 정치 지도자) · She(178쪽 ¶4 = 메르켈) / them · they(179쪽 첫 줄 = 부유국) · it(182쪽 ¶3 = 안정화) / They(185쪽 ¶1 = 연설의 첫 말) · they(186쪽 ¶2 = 학교 파업)
7~8	내용 일치·불일치	2015년 7월 10만 · 8월 한 주 21,000 · 2,500 · 튀르키예 · 레바논 · 요르단 · 5,950만(177쪽 ¶1~¶2) / 89만 · 60만 · 18개월 · 1970 브란트(177쪽 ¶4) / 2℃ · 0.8℃ · 7m · 1.5℃ · 154 · 500억 → 550억~600억 · 360억(182쪽 ¶7 ~ 183쪽 ¶1) / 2019년 9월 · 4분 · 600만 · 30년 · 50% · 3,500억 톤 · 2028(185쪽 ¶1~¶4) / 스웨덴 · 모로코 · 리투아니아 · 미국 하위 5개국(185쪽 ¶5)
9~10	**어법**	the number of · 독립분사구문 · with + O + -ing · the + 과거분사 · to부정사 주어 · 부정 주어 + 비교급 · 계속적 which + 과거완료 · on which · Neither A nor B · define A as B · not only A but B · It is not A but B who · that of · 형용사 + as + S + V(양보) · 가주어 + for · 가정법 과거(제안) · 동명사 주어 · enough to · with + 명사 + to V · to 부정사(형용사적) · if not · prevent A from -ing · start by -ing · the second largest · it remains to be seen · 최상급 + 현재완료 · as + V + S 도치 · accuse A of -ing · How dare · would have had to · Nor 도치 · where 명사절 · call for + O + to V · be regarded as · no less A than B · would + if 현재 · from which to V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persecuted ↔ protected · spontaneous ↔ planned · humanely ↔ cruelly · undercut ↔ strengthen · genuine ↔ fake · lethal ↔ harmless · stabilize ↔ destabilize · thaw ↔ freeze · binding ↔ voluntary · vague ↔ precise · unheeded ↔ heeded · slash ↔ increase · insufficient ↔ sufficient · apt ↔ inappropriate · slip by ↔ arrive(185쪽 ¶3) · halve ↔ double · nonviolent ↔ violent · avert ↔ cause
12	빈칸 추론	nonviolent protest that no one has yet tried(186쪽 ¶6) / a responsibility to take refugees(179쪽 첫 줄) / rights must have a limit(178쪽 ¶4) / fell far short of what is required(182쪽 ¶5) / ought not to accept a 10% chance(183쪽 ¶3) / no ethical justification for continuing to emit(185쪽 ¶6)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문장 삽입	우크라이나 난민(178쪽 ¶5 ~ 179쪽 첫 줄): 유럽 안의 난민은 다른 듯 → 2주 동안 200만 명 넘게 → 150만 명은 폴란드, 나머지는 헝가리 · 슬로바키아 · 루마니아 · 몰도바 · 일부 러시아 → 폴란드 · 헝가리 정부의 대조(시리아 난민엔 저항, 우크라이나 난민은 환영) → 실제적 해법은? → 부유국의 책임 → 진짜 난민 가리기
14	무관한 문장	학교 파업과 Extinction Rebellion(186쪽 ¶2~¶3)에 다른 편의 사실(경제 난민을 받을 의무가 없다는 난민 협약, 178쪽 ¶2)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선거의 흐름(177쪽 ¶5 ~ 178쪽 ¶1): 두 달도 안 돼 폴란드 → 이듬해 영국 · 트럼프 → 2017 오스트리아 → 같은 해 독일 연방 선거 → 그다음 해 이탈리아 → Finally 오르반 → 이민이 역할(어쩌면 결정적)
16	요약문 완성	파리 회의의 평가(183쪽 ¶6 ~ 184쪽 첫 줄): 코펜하겐과 달리 완전한 실패는 아님 · 2℃보다 '훨씬 아래' · 모든 나라의 몫 → 그러나 서약은 부족 · 글래스고 이후에도 1.5℃를 넘을 것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숫자 · 도시 · 나라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10만 · 21,000 · 2,500 · 5,950만 · 89만 · 60만 · 18개월 · 1970 · 2017 · 8포인트 · 2018 · 2022 · 200만 · 150만(1편) / 1992 · 189 · 2009 · 154 · 2℃ · 0.8℃ · 7m · 1.5℃ · 500억 · 550억~600억 · 360억 · 10% · 2050 · 2021(2편) / 2019 · 4분 · 600만 · 30년 · 10년 · 50% · 3분의 1 · 3,500억 톤 · 2028 · 15세(3편). 비슷한 숫자 쌍(89만과 60만, 189와 154, 200만과 150만, 2℃와 1.5℃와 0.8℃, 2009와 2019, 2018과 2028)이 함정이다.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far more ↔ fewer, the highest ↔ the second highest, resisted ↔ welcomed, unheeded ↔ accepted, not a complete failure ↔ a complete failure, insufficient ↔ sufficient, standing alone ↔ leading a crowd, apt ↔ inappropriate). '어쩌면'(possibly) · '~인 듯'(seems) · '~할 수도'(could · may) · '~할 가능성이 크다'(likely) · '툰베리가 지적했다'(Thunberg pointed out)를 사실로 바꾼 선지, 메르켈 · 툰베리 · Extinction Rebellion의 말이나 요구를 저자(싱어)의 주장으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개발도상국의 주장은 저자가 '옳다'고 했지만 Extinction Rebellion의 요구는 소개만 했다.

1-2. 구조도 – 「The Refugee Dilemma · Paris and the Fate of the Earth · Greta Thunberg」 (177~179 · 182~186쪽)

논증형 세 편. ① 사례(난민 위기의 규모) → 메르켈의 약속 → 잇따른 선거 결과 → 저자의 진단 → 협약의 한계 → 딜레마 · 메르켈의 현실론 → 대조 사례(우크라이나) → 쟁점 → 저자의 제안. ② 걸린 것 → 리우의 출발점 → 실패의 역사 → 두 가지 모호함 → 서약의 격차 · 항공사 비유 → 저자의 대안 → 파리 회의의 평가. ③ 사례(툰베리의 연설) → 툰베리의 근거 → 성적표 → 저자의 판단 → 물음 · 운동 → 시민 불복종의 역사 → 저자의 결론. 핵심 축은 **무제한의 권리 vs 한계 있는 권리**, **지금의 서약 vs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 **부유국의 배출 vs 가난한 나라의 피해**.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77 ¶1~¶2	사례 · 규모	2015년 7월 유럽연합 국경의 이주민 10만 명 넘음 · 8월 한 주 그리스 21,000명 · 관광객의 불평 · 그해 지중해 익사 2,500명 넘게(대부분 북아프리카 → 이탈리아) / 시리아 내전 = 튀르키예 · 레바논 · 요르단에 훨씬 많이 · 로힝야족 · 2014년 말 5,950만 명(유엔 난민 기구 추산 · 역대 최고)
177 ¶3~¶4	메르켈의 약속	망명권에는 상한이 없다 · 내전의 지옥에서 온 난민에게도 / 2015년 망명 신청자 89만 명 등록 · 9월 1일부터 18개월간 60만 건 넘게 승인 · 'Wir schaffen das' · 1970년 브란트의 무릎 꿇기보다도 결정적(저자의 평가)
177 ¶5~178 첫 줄	반발	두 달도 안 돼 폴란드 법과 정의당 집권 · 이듬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선택 · 트럼프 당선 · 2017 오스트리아 자유당 연정 · 독일 기독교민주연합 8포인트 불리 · 독일을 위한 대안 제3당 · 그다음 해 이탈리아(살비니) · 오르반 재집권
178 ¶1~¶2	저자의 진단	이민이 모든 결과에 역할(어쩌면 결정적) · 이민 희망자뿐 아니라 세계에 비극 · 기후 변화로 굶주릴 아이들의 울음은 아직 들리지 않음 / 난민 협약 = 박해의 다섯 근거 · 경제 난민 받을 의무 없음 · 기후 난민은 생각 못 함
178 ¶3~¶4	딜레마 · 현실론	국경 통제를 강화해 극우 정당(저자의 표현) 지지를 꺾거나, 그 싸움과 다른 가치까지 잃을 위험 / 2018년 정치적 현실주의자 메르켈 · 국경 통제 강화 · 구조된 사람 돌려보내기 → 결국 권리에는 한계(저자)
178 ¶5	대조 사례	유럽 안의 난민은 다른 듯(seems) · 2022년 2월 침공 뒤 2주 동안 200만 명 넘게 · 150만 명 폴란드 / 폴란드 · 헝가리 정부 = 시리아 난민엔 저항, 우크라이나 난민은 환영
178 ¶6~179 첫 줄	쟁점	환영받지 못하는 난민에게 실제적 해법은? · 부유국은 난민을 받을 책임 · 더 받을 수 있고 받아야(저자) / 진짜 난민과 '잘 코치받은' 이주민을 가리기 어려움
179 ¶1~¶2	저자의 제안	협약 → 밀입국 알선 산업 · 가까운 나라의 안전한 캠프(교육 · 일자리 · 부유국 지원) 라면 밀입국과 이동 중 죽음이 사라질 것(would) · 국경 통제 유지 / 돌려보내기는 감정적으로 어려움 · 캠프의 수백만 명에게도 연민과 희망
182 ¶1~¶2	걸린 것 · 출발점	2015년 11월 파리 · 수십억 명의 삶 · 멸종 위기종 / 1992 리우 '지구 정상 회의' · 189개국 · 유엔 기후 변화 기본 협약 ·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막을 만큼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
182 ¶3~¶5	실패의 역사	안정화 없음 → 되먹임 고리(북극 얼음 ·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의 메탄) · 살 수 없는 땅이 될 수도 / 법적 구속력 전략 좌절(부시 시절 미국의 비타협도 한 원인) · 2009 코펜하겐 · 자발적 서약 · 154개국 · 크게 모자람
182 ¶6~183 첫 줄	첫째 모호함	두 가지 모호함 · 2℃ 상한으로 해결 · 많은 과학자 = 더 낮아도 위험 · 0.8℃만으로 기록적 고온 · 그린란드(7m) · 작은 섬나라의 1.5℃ 호소 묵살(정치적으로 비현실적이라 여겨)
183 ¶1~¶3	격차 · 비유	그랜섬 연구소 = 서약이 다 이행돼도 500억 → 2030년 550억~600억 톤 · 2℃ 50%에 360억 톤 / 오스트레일리아 = 지금 멈춰도 10% / 항공사 비유 → 10%(어쩌면 몇 배)를 받아들여선 안 됨(저자)
183 ¶4~¶5	저자의 대안	개발도상국의 값싼 에너지 필요 > 부유국의 낭비 · 그들이 옳다 → 부유국은 늦어도 2050년까지 탈탄소 · 석탄 발전소 폐쇄 / 육류세(perhaps) · 축산업 = 둘째로 큰 배출원 · 암 사망 감소
183 ¶6~184 첫 줄	평가	코펜하겐과 달리 완전한 실패는 아님 · '훨씬 아래' 2℃ · 1.5℃ 노력 · 모든 나라의 몫 / 서약 부족 · 코로나로 미뤄져 2021년 11월 글래스고 · phase out → phase down(중국 · 인도) · 1.5℃를 넘고 2℃도 넘을 수도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85 ¶1~¶2	사례	'This is all wrong!' · 저자가 들은 가장 강력한 4분 연설 · 2019년 9월 유엔 기후 행동 정상 회의 · 시위 참가 약 600만 명(추산) / 비용을 더 떠안을 젊은이들 → 도덕적 분노는 적절(저자) · 'How dare you?'
185 ¶3~¶5	근거 · 성적표	30년 동안 알려진 과학 · 10년 안에 절반을 줄여도 1.5℃ 아래 50%(툰베리) · 3분의 1로 줄이려면 2050년까지 3,500억 톤 · 지금 속도면 2028년 / '매우 좋음' 없음 · 스웨덴 · 모로코 · 리투아니아 · 미국은 하위 5개국
185 ¶6~186 첫 줄	저자의 판단	윤리적 쟁점은 판정하기 어렵지 않다 · 부유국의 1인당 높은 배출 = 정당화 불가 · 3분의 1의 확률 = 총알 두 발의 러시안룰렛 · 전환 비용은 위험과 비교도 안 됨 ·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
186 ¶1~¶3	물음 · 운동	툰베리의 긍정적 마무리 / 젊은이가 세상을 깨울 수 있나 · 학교 파업이 지도자를 움직일까 / Extinction Rebellion = 시민 불복종 옹호 · 도로 봉쇄 · 엄격한 비폭력
186 ¶4~¶6	역사 · 결론	간디 · 킹 · 베트남 전쟁 = 지금은 용기 있고 옳은 일로 널리 여겨짐 / 정부의 실패는 그 못지않게 그르다 →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면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될 것 / 아직 시도하지 않은 비폭력 방식이 있을 수도 · 혼자 선 15세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망명권의 한계	정치적 박해를 받는 사람의 망명권에는 상한이 없다(메르켈, 2015 – 저자는 '용감한 말'이라 함)	그 선언이 아무리 고무적이어도 결국 권리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 메르켈의 2015년과 2018년 발언의 대비가 보여 준다(저자)
이민을 둘러싼 선거	국경을 닫으라는 민족주의자 · 포퓰리스트, 저자가 반이민 · 극우라 부르는 정당과 정부의 잇따른 집권	이민이 그 모든 결과에 역할(어쩌면 결정적) – 이민 희망자뿐 아니라 세계 전체에 비극이다(저자)
난민 문제의 해법	지금의 협약 체제 – 누가 진짜 난민이고 누가 '잘 코치받은' 이주민인지 가리기 어렵고, 비양심적이며 흔히 치명적인 밀입국 알선 산업도 생겨남(저자가 짚는 문제)	가까운 나라의 안전한 난민 캠프(교육 · 일자리 · 부유국 지원) – 밀입국과 이동 중 죽음이 사라지고, 국경 통제를 지키며 캠프에서 더 받을 것(저자의 제안, would)
연민의 범위	자기 나라에 닿은 사람에게만 쏠리는 연민 – 그들을 돌려보내기는 감정적으로 어렵다(저자도 인정)	난민 캠프에서 기다리는 수백만 명에게도(also) 연민을 가져야 한다 – 그들에게도 희망이 필요하다(저자)
부유국의 수용	많은 부유국이 지금 받아들이는 만큼의 난민	부유국은 난민을 받을 책임이 있고, 많은 나라가 지금보다 더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저자)
목표 기온	1.5℃에 필요한 조치는 정치적으로 비현실적이라며 작은 섬나라들의 호소를 묵살한 코펜하겐의 세계 지도자들(원서는 까닭을 보고함)	많은 과학자는 2℃보다 낮은 상승도 위험하다고 본다 – 0.8℃만으로도 기록적 고온 · 극한 기상 · 그린란드 빙상의 상당한 융해(저자가 근거로 듦)
서약과 위험	지금의 서약 – 다 이행돼도 2030년 550억~600억 톤 · 2℃를 넘을 10%(어쩌면 몇 배)의 가능성을 그대로 안음	비행기가 안전하게 비행을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10%인 항공사는 위험한 비행을 막았다고 할 수 없다 – 그런 위험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저자)
에너지와 빈곤	흔히 낭비적인 에너지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는 부유국의 필요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개발도상국의 값싼 에너지 필요가 더 크다(개발도상국의 주장 – 저자: 옳다) → 부유국은 늦어도 2050년까지 탈탄소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파리 회의의 평가	완전한 실패(앞선 코펜하겐 회의)	완전한 실패는 아니다 – 2℃보다 '훨씬 아래' · 1.5℃ 노력 · 모든 나라가 몫을 한다는 합의 / 다만 서약은 목표에 모자란다(저자)
지도자들의 말	충분히 하고 있다 · '평소대로'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기술을 더하면 풀린다(툰베리가 비판한 세계 지도자들)	기후 변화의 비용을 더 떠안을 젊은이들 앞에서 툰베리의 도덕적 분노와 'How dare you?'는 적절했다(저자)
부유국의 배출	대기 중 CO2 대부분에 책임 있는 부유국이 1인당 훨씬 높은 수준으로 계속 배출	윤리적 정당화가 있을 수 없다 – 3분의 1의 확률을 강요하는 것은 총알 두 발의 러시안룰렛 · 전환 비용은 그 위험과 비교도 안 된다(저자)
시민 불복종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는 정부들 – 그 실패는 영국의 인도 통치 · 흑인의 평등권 거부 · 베트남 전쟁 못지않게 그르고 피해는 훨씬 클 가능성이 크다(저자)	정부가 과학을 따르게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면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될 것이다(저자, 조건)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July 2015 · August	**2015년 7월** 유럽연합 국경에 닿은 이주민 **10만 명** 넘음 / **8월**의 한 주 그리스 도착 **21,000명** · 그리스 섬의 휴가가 난민 수용소 한복판이 됐다는 관광객의 불평
Mediterranean	그해 지중해 익사 **2,500명 넘게** · 대부분 **북아프리카 → 이탈리아**로 건너가려던 이주 희망자
Syria · Turkey · Lebanon · Jordan	시리아 내전 난민 = 유럽 어느 나라보다 **튀르키예 · 레바논 · 요르단**에 훨씬 많이 / 아시아 = 미얀마 이슬람 소수 민족 **로힝야족** 박해
UNHCR · end of 2014	유엔 난민 기구 추산 강제로 터전을 떠난 사람 **5,950만 명**(기록상 **최고**) · **180만** 명 망명 결정 대기 · **1,950만** 명 난민 · 나머지 = 자기 나라 안
Angela Merkel 2015	독일 총리 · 정치적 박해를 받는 사람의 망명권에는 **상한이 없다** · 내전의 지옥에서 온 난민에게도 · 'Wir schaffen das'(We can do it)
890,000 · 600,000	**2015년** 등록한 망명 신청자 **89만 명** / 그해 **9월 1일**부터 **18개월** 동안 **60만 건 넘게** 망명 승인
Willy Brandt 1970	바르샤바 게토 봉기 영웅 기념비 앞 즉흥적 무릎 꿇기 · 메르켈의 행동은 그보다도 결정적으로 독일을 인종주의적 과거에서 떼어 놓았다(**저자의 평가**)
Poland · Law and Justice	메르켈의 선언 뒤 **두 달도 안 돼** '법과 정의당'(반이민 – 저자의 서술) 집권 / **이듬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선택 · 트럼프 당선
2017 Austria · Germany	오스트리아 조기 총선 → **자유당**(극우 – 저자의 서술)이 든 연정 / 독일 연방 선거 = 기독교민주연합에 **8포인트** 불리 · 연방 하원 의석이 없던 '독일을 위한 대안'(반이민 – 저자의 서술)이 **제3당**
Italy · Hungary	**그다음 해** 이탈리아 총선 → 동맹(League, 극우 – 저자의 서술)의 마테오 살비니가 주도하는 연정 / 헝가리 오르반(권위주의적 반이민 총리 – 저자의 서술) = 큰 차이로 재집권 · 가장 예측할 만한 결과
UN refugee Convention	난민 =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두려움 · **경제 난민**을 받을 의무 없음 · **기후 변화 난민**은 생각 못 함
Merkel 2018	유럽연합 이주 정상 회의 앞 · 이상주의자가 아닌 **정치적 현실주의자** · 이주 = 유럽연합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could) · 국경 통제 강화 · 바다에서 구조된 사람을 떠나온 나라로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Ukraine 2022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뒤 첫 **2주 200만 명** 넘게 · **150만 명**은 폴란드로 · 나머지는 헝가리 · 슬로바키아 · 루마니아 · 몰도바 · 일부 러시아 / 폴란드 · 헝가리 정부 = 시리아 난민 수용엔 **저항**했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환영**함
Rio 1992 · UNFCCC	'지구 정상 회의' · **189개국**(미국 · 중국 · 인도 · 유럽의 모든 나라) · 유엔 기후 변화 기본 협약 ·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막을 만큼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
Copenhagen 2009 · Kyoto	법적 구속력 전략 좌절(부시 시절 미국의 비타협도 한 원인) · 교토 의정서(미국은 서명 안 함)를 대신할 조약 실패 → 코펜하겐 합의 = **자발적** 서약 · **154개국**
2°C · 0.8°C · 1.5°C	산업화 이전보다 **2℃** 상한 / 지금까지 **0.8℃** · 그린란드 빙상 = 해수면 **7m** 상승분의 물 / 작은 섬나라의 **1.5℃** 요구 = 코펜하겐에서 **묵살**
Grantham Research Institute	런던 정치경제대학 · 154개국 서약 분석 · 다 이행돼도 연 **500억 톤** → 2030년 **550억~600억 톤**으로 증가 · 2℃ 50% 가능성이라도 **360억 톤** 필요
National Centre for Climate Restoration	**오스트레일리아** · 지금 당장 배출을 더하지 않아도 2℃를 넘을 가능성 **10%**
2050 · coal · meat	부유국 탈탄소 = 늦어도 **2050년** · 석탄 발전소 폐쇄 · 새 탄광 불허 / 유엔 식량 농업 기구 = 축산업은 **둘째로** 큰 배출원(수송 부문 전체보다 앞) / 세계보건기구 등 = 가공육 · 적색육을 줄이면 암 사망 감소
Paris · Glasgow	**2015년 11월** 파리 · 2℃보다 '훨씬 아래' · 1.5℃ 노력 · **5년** 뒤 회의 → 2020년 예정 · 코로나로 미뤄져 **2021년 11월** 글래스고 · **중국 · 인도**의 요구로 phase out → phase down
Greta Thunberg	스웨덴의 10대 기후 활동가 · **2019년 9월** 유엔 기후 행동 정상 회의 · **4분** 연설 · 'How dare you?' · 처음엔 스웨덴 의회 밖에 **혼자** · 'School Strike for Climate' · 당시 **15세**
6 million · 30 years · 50%	한 주의 기후 파업 · 행진 **약 600만 명**(추산) / 과학은 **30년** 동안 알려짐 / **10년** 안에 배출 절반 → 1.5℃ 아래 **50%**(툰베리의 지적)
IPCC · 350 gigatons · 2028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툰베리가 인용) · 1.5℃를 넘을 위험을 **3분의 1**로 → 2050년까지 CO2 **3,500억 톤** · 지금 속도면 **2028년**에 넘음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매우 좋음' 정부 **없음** · 스웨덴 · 모로코 · 리투아니아가 가장 잘함 · 라트비아 · 영국이 바로 뒤 / 미국 = **하위 5개국**(사우디아라비아 · 이란 · 한국 · 대만과 함께)
Extinction Rebellion · Gandhi · King	런던의 반란 선언으로 '**지난해**' 시작 · 시민 불복종 · 엄격한 비폭력 / 간디(**남아프리카** → 인도) · 킹(인종 분리 반대) · 베트남 전쟁 / 간디 동상 · 킹의 생일 = 미국 공휴일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thics in the Real World · The Refugee Dilemma · Paris and the Fate of the Earth · Greta Thunberg (원서 PDF 177~179 · 182~186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8-1 사례와 반발 – 난민 위기의 규모, 메르켈의 약속, 이민에 맞선 선거들 177쪽 ¶1 ~ 178쪽 ¶1

원문 위치 원서 177쪽 ¶1 ~ 178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77쪽 ¶1 첫~둘째 문장	In July 2015, the number of migrants reaching the borders of the European Union passed 100,000. In one week in August, 21,000	숫자 – 내용 일치
▲	177쪽 ¶1 첫 문장	the number of migrants reaching the borders	the number of · 현재분사 후치
★	177쪽 ¶1 다섯째 문장	More than 2,500 would-be migrants drowned … most of them attempting to cross from North Africa to Italy	방향 뒤집기 · 독립분사구문
★	177쪽 ¶2 둘째 문장	brought far more refugees to Turkey, Lebanon, and Jordan than to any country in Europe	내용 일치 1순위
★	177쪽 ¶2 다섯째 문장	59.5 million forcibly displaced people worldwide, the highest level ever recorded	숫자 · 최상급
▲	177쪽 ¶3 첫 문장	with nationalists and populists clamoring for borders to be closed	with + O + -ing · 수동 부정사
◆	177쪽 ¶3 첫 문장	The fundamental right to asylum for the politically persecuted knows no upper limit.	밑줄 의미 · the + 과거분사
★	177쪽 ¶4 둘째 문장	Germany registered 890,000 asylum seekers … accepted more than 600,000 applications	숫자 – 서답형
▲	177쪽 ¶4 셋째 문장	To integrate so many newcomers … was obviously going to be a difficult task	to부정사 주어 · 과거에서 본 미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77쪽 ¶4 셋째 문장	Merkel famously proclaimed, “Wir schaffen das” (We can do it).	밑줄 의미
▲	177쪽 ¶4 넷째 문장	No act by any German leader, not even Willy Brandt’s … has more decisively distanced	부정 주어 + 비교급 · 부사 자리
★	177쪽 ¶5 첫 문장	Less than two months after Merkel championed the unlimited right to asylum, however, Poland’s voters	순서 배열의 첫 고리
▲	178쪽 첫 줄	Alternative for Germany, which had never before won a seat in the Bundestag	계속적 which · 과거완료
◆	178쪽 첫 줄	Finally, and most predictably of all these results, Viktor Orbán	순서 배열의 끝 고리
◆	178쪽 ¶1 첫~둘째 문장	Migration played a role—possibly a decisive role— … That is tragic, not just for would-be immigrants, but for the world.	저자의 진단(possibly)
▲	178쪽 ¶1 셋째 문장	rainfall patterns on which their parents rely to grow food	전치사 + 관계대명사

내용

2015년 7월 유럽연합 국경에 닿은 이주민의 수가 10만 명을 넘었고, 8월의 한 주 동안에만 21,000명이 그리스에 도착했다. 관광객들은 그리스 섬에서 보내려던 여름휴가가 난민 수용소 한복판이 되어 버렸다고 불평했지만, 물론 난민 위기에는 훨씬 더 심각한 결과가 따랐다. 그해 2,500명이 넘는 이주 희망자가 지중해에서 익사했고, 대부분은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로 건너가려던 사람들이었다. 위기는 유럽 밖으로도 번졌다. 시리아 내전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튀르키예 · 레바논 · 요르단에 훨씬 많은 난민을 보냈고, 아프가니스탄 · 소말리아 · 리비아 · 에리트레아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남수단 · 나이지리아 · 콩고 민주 공화국을 떠나는 난민도 있었다. 아시아에서는 미얀마의 이슬람 소수 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박해가 난민을 더 낳았다. 유엔 난민 기구는 2014년 말 전 세계에서 강제로 터전을 떠난 사람이 5,950만 명으로 기록상 가장 많다고 추산했다. 그 가운데 180만 명은 망명 신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고, 1,950만 명은 난민이었으며, 나머지는 자기 나라 안에서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었다. 민족주의자와 포퓰리스트들이 국경을 닫으라고 아우성치던 그때,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사람들이 망명할 기본권에는 상한이 없으며, 이것이 내전의 지옥에서 오는 난민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메르켈은 그 용감한 말을 행동으로 옮겼다. 2015년 독일은 망명 신청자 89만 명을 등록했고, 그해 9월 1일부터 18개월 동안 60만 건이 넘는 망명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화적 배경이 아주 다른 그 많은 새 이주민을 통합하는 일은 분명 어려울 터였지만, 메르켈은 '우리는 해낼 수 있다(Wir schaffen das)'고 선언한 것으로 유명하다. 저자는 1970년 빌리 브란트가 바르샤바 게토 봉기 영웅 기념비 앞에서 즉흥적으로 무릎 꿇은 일을 포함해, 어떤 독일 지도자의 어떤 행동도 이보다 더 결정적으로 독일을 인종주의적 과거에서 떼어 놓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메르켈이 무제한의 망명권을 옹호한 지 두 달도 안 되어 폴란드 유권자들은 저자가 반이민 정당이라 부르는 법과 정의당에 권력을 주었다(아래 정당 앞의 '반이민' · '극우'도 모두 저자의 표현). 이듬해 영국 유권자들은 유럽연합 탈퇴를 택했고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2017년 오스트리아의 조기 총선은 극우 자유당이 든 연립 정부로 이어졌고, 독일 연방 선거에서는 메르켈의 기독교민주연합에 8포인트 불리한 변동이 일어났다. 연방 하원에서 한 석도 얻은 적이 없던 반이민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은 제3당이 되었다. 그다음 해 이탈리아 총선으로 극우 동맹(League)

의 마테오 살비니가 주도하는 연립 정부가 들어섰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결과 가운데 가장 예측할 만했던 일로, 저자가 권위주의적 반이민 총리라고 부르는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이 큰 차이로 다시 집권했다. 저자는 이민이 이 모든 결과에 어떤 역할을, 어쩌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이것이 이민 희망자에게만이 아니라 세계에 비극이라고 말한다. 트럼프의 가혹한 이민 정책(저자의 표현)으로 멕시코 국경에서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를 움직인다. 그러나 트럼프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오바마의 온건한 제한을 뒤집었고, 기후 변화가 부모들이 가족의 먹을거리를 기르는 데 기대는 강우 양상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들 아이들의 울음은 아직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

어법

- **In July 2015, the number of migrants reaching the borders of the European Union passed 100,000** : the number of + 복수명사 = ~의 수(주어의 중심은 number — 과거형 passed라 수가 형태로는 드러나지 않음). a number of(많은)와 구별. reaching = migrants를 꾸미는 현재분사 후치.
- **More than 2,500 would-be migrants drowned in the Mediterranean that year, most of them attempting to cross from North Africa to Italy** : most of them attempting ~ = 의미상 주어(most of them)가 따로 있는 독립분사구문(그들 대부분은 ~하려던 중이었다). would-be = ~이 되려는(이주 희망자).
- **The civil war in Syria brought far more refugees to Turkey, Lebanon, and Jordan than to any country in Europe** : far + 비교급 = 훨씬 더. 비교 대상을 맞추려고 than 뒤에도 전치사 to를 되풀이(to Turkey … than to any country). any + 단수 명사 = 어느 나라보다도.
- **with nationalists and populists clamoring for borders to be closed,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said** : with + O + -ing = O가 ~하는 가운데(부대 상황). clamor for + O + to V = O가 ~하라고 아우성치다. to be closed = 수동 부정사(국경이 닫히도록).
- **The fundamental right to asylum for the politically persecuted knows no upper limit** : the + 과거분사 = ~한 사람들(the politically persecuted =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사람들). know no ~ = ~이 없다(know no limit = 한계를 모른다).
- **To integrate so many newcomers from very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was obviously going to be a difficult task** : to부정사 주어(To integrate …) → 단수 동사 was. was going to = 과거 시점에서 본 앞날(~하게 될 일이었다). so many + 복수명사.
- **No act by any German leader, not even Willy Brandt's spontaneous decision in 1970 to kneel before a memorial …, has more decisively distanced Germany from its racist past** : 부정 주어 No act + 비교급 = 어떤 행동도 이보다 더 ~하지 못했다(최상급의 뜻). not even ~ = 삽입(~조차도). 단수 주어 → has. decision to V. distance A from B = A를 B에서 떼어 놓다. more decisively = 동사를 꾸미는 부사의 비교급.
- **The anti-immigrant Alternative for Germany, which had never before won a seat in the Bundestag, became the country's third-largest party** : 계속적 which(선행사 = 정당). had won = 과거완료(그 선거 전까지 한 번도). the + 서수 + 최상급(third-largest = 셋째로 큰).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migrant	이주민	immigrant	—
would-be	~이 되려는	aspiring	—
implication	(뒤따르는) 결과, 영향	consequence	—
persecution	박해	oppression	protection
forcibly	강제로	by force	voluntarily
displaced	터전을 잃은	uprooted	settled
asylum	망명, 피난처	refuge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lamor (for)	아우성치며 요구하다	demand	—
register	등록하다	record	—
integrate	통합하다, 받아들여 어울리게 하다	incorporate	exclude
proclaim	선언하다	declare	—
spontaneous	즉흥적인	impulsive	planned
snap election	조기 총선	early election	—
authoritarian	권위주의적인	dictatorial	democratic

내용 일치 2015년 7월 10만 명 '넘음' · 8월 한 주 그리스 21,000명 · 관광객의 불평 · 2,500명 넘게 익사(대부분 북아프리카 → 이탈리아) · 시리아 난민 = 유럽보다 튀르키예 · 레바논 · 요르단에 '훨씬 많이' · 로힝야족 · 2014년 말 5,950만 명(유엔 난민기구 '추산' · 기록상 최고) · 180만 대기 · 1,950만 난민 · 메르켈 = 망명권에 상한 없음 · 89만 등록 · 18개월간 60만 건 넘게 승인 · 'Wir schaffen das' · 브란트의 1970년 무릎 꿇기보다 결정적(저자의 평가) · 두 달도 안 돼 폴란드 · 이듬해 영국 · 트럼프 · 2017 오스트리아 · 독일(8포인트 · 제3당) · 그다음 해 이탈리아 · 오르반 · 이민의 역할(어쩌면 결정적) · 비극(저자). **밑줄 의미** knows no upper limit = 받아들일 난민 수에 미리 정한 한도가 없다는 원칙 / Wir schaffen das = 통합이 어렵더라도 독일은 해낼 수 있다는 메르켈의 다짐 / most predictably of all these results = 오르반의 재집권은 그중 가장 놀랍지 않은 결과 / we cannot yet hear the cries = 기후 변화의 피해자는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저자의 지적 / 177쪽 ¶3 She added · this applies = 메르켈 · 망명권 / 178쪽 ¶1 their parents = 굶주릴 아이들의 부모.

> **한 줄 요약** 2015년의 난민 위기 속에서 메르켈은 망명권에 상한이 없다고 선언하고 행동으로 옮겼지만, 그 뒤 유럽과 미국의 선거에서 저자가 반이민 세력이라 부르는 쪽이 잇따라 힘을 얻었고, 저자는 이민이 그 결과에 어쩌면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이를 세계의 비극으로 본다.

8-2 협약의 한계와 딜레마, 저자의 제안 — 권리에는 한계를, 캠프에는 희망을 178쪽 ¶2 ~ 179쪽 ¶2

원문 위치 원서 178쪽 ¶2 ~ 179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78쪽 ¶2 첫 문장	Neither those children nor their parents will be able to claim asylum in the countries responsible for climate change.	통합 사고 · Neither A nor B
▲	178쪽 ¶2 둘째 문장	defines refugees as those unable or unwilling to return to their country	define A as B · those + 형용사구
★	178쪽 ¶2 둘째 문장	on the ground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다섯 근거 — 내용 일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78쪽 ¶2 셋째 문장	There is no requirement to take economic refugees … did not think about climate change refugees	무관한 문장 재료
▲	178쪽 ¶3 둘째 문장	Either they go far enough toward stricter border control to undercut … or they risk losing not only that battle, but	enough to · risk -ing · not only A but
◆	178쪽 ¶4 둘째 문장	it was not Merkel the idealist, but Merkel the political realist who told the German parliament	밑줄 의미 1순위 · 강조 구문
▲	178쪽 ¶4 둘째 문장	but that of migration could become one that determines the fate of the European Union	that of · one
★	178쪽 ¶4 셋째 문장	strengthen Europe's border controls and return people rescued at sea to the countries from which they had come	2018년의 합의 — 내용 일치
◆	178쪽 ¶4 넷째 문장	inspirational as the proclamation of an unlimited right to asylum may be, in the last resort, rights must have a limit	저자의 결론 · 양보 구문
◆	178쪽 ¶5 첫 문장	Refugees from within Europe seems to be a different matter.	저자의 단서(seems)
★	178쪽 ¶5 둘째 문장	more than 2 million refugees fled the country, with 1.5 million crossing the border to Poland	숫자 — 서답형
★	178쪽 ¶5 셋째 문장	had strongly resisted pressure from the European Union to take more Syrian refugees, but welcomed the Ukrainians	삽입 문항 · 대조
★	179쪽 첫 줄	Affluent countries have a responsibility to take refugees, and many of them can and should accept more than they do.	통합 사고 빈칸
▲	179쪽 첫 줄	it has become difficult for tribunals and courts to determine who is a genuine refugee … and who is a well-coached migrant	가주어 · for + 의미상 주어 · 간접의문문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79쪽 ¶1 둘째 문장	If those who claim asylum in a nearby country were sent to a refugee camp ... would be eliminated	가정법 과거(제안) — 제목
◆	179쪽 ¶2 둘째~셋째 문장	we should also have compassion for the millions ... They too need to be given hope.	저자의 결론 · 밑줄 의미

내용

그 아이들도 부모들도 기후 변화에 책임이 있는 나라에 망명을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으리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려 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경제 난민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고, 협약을 쓴 사람들은 기후 변화 난민을 생각하지 못했다. 망명 신청자와 다른 이민 희망자를 인도적으로 대하고 싶은 정치 지도자들은 이제 끔찍한 도덕적 딜레마에 놓인다. 국경 통제를 충분히 강화해 극우 정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꺾든지, 아니면 그 싸움뿐 아니라 반이민 정부가 위협하는 다른 모든 가치까지 잃을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메르켈 자신도 이 딜레마를 알았다. 2018년 이주 문제를 다룰 유럽연합 정상 회의를 앞두고, 유럽이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이주의 도전은 유럽연합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독일 의회에서 말한 것은 이상주의자 메르켈이 아니라 정치적 현실주의자 메르켈이었다. 그 뒤 그녀는 다른 유럽 지도자들과 함께 유럽의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바다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그들이 떠나온 나라로 돌려보내기로 합의했다. 저자는 메르켈의 2015년 발언과 2018년 발언의 대비가, 무제한의 망명권 선언이 아무리 고무적이라 해도 결국에는 권리에 한계가 있어야 하는 까닭을 보여 준다고 말한다. 유럽 안에서 나온 난민은 사정이 다른 듯하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처음 2주 동안 2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그 나라를 떠났다. 150만 명은 국경을 건너 폴란드로 갔고, 다른 이들은 헝가리 · 슬로바키아 · 루마니아 · 몰도바로, 일부는 러시아로도 갔다. 특히 폴란드와 헝가리 정부는 시리아 난민을 더 받으라는 유럽연합의 압력에 강하게 저항해 왔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환영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든 우크라이나 난민처럼 이웃 나라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난민에게 이 딜레마의 실제적인 해법이 있을까? 저자는 부유한 나라에 난민을 받아들일 책임이 있고, 그 가운데 많은 나라가 지금보다 더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망명을 청하는 사람이 늘면서, 재판소와 법원은 누가 유엔 협약이 정의한 진짜 난민이고 누가 더 부유한 나라에서 더 나은 삶을 찾는 '잘 코치받은' 이주민인지 가리기 어려워졌다. 협약은 또 비양심적이고 흔히 치명적인 밀입국 알선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낳았다. 저자의 제안은 이렇다. 가까운 나라에 망명을 청한 사람을 박해에서 안전하고, 교육과 의미 있는 일자리의 기회가 있으며, 부유한 나라의 원조로 재정이 뒷받침되는 난민 캠프로 보낸다면 밀입국 알선과 그로 인한 이동 중의 죽음은 사라질 것이다. 경제적 이주민이 망명을 청할 동기는 줄 것이고, 부유한 나라는 국경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캠프에서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일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나라에 가까스로 닿은 사람을 돌려보내는 일은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라 해도 감정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저자는 난민 캠프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백만 명에게도 연민을 가져야 하며, 그들에게도 희망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어법

- **Neither those children nor their parents will be able to claim asylum in the countries responsible for climate change** : Neither A nor B = A도 B도 아니다(동사는 B에 맞추는 것이 원칙 — 여기서는 조동사 will이라 형태로 드러나지 않음). responsible for ~ = countries를 뒤에서 꾸미는 형용사구(= countries which are responsible for).
- **The UN Convention ... defines refugees as those unable or unwilling to return to their country because of a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 define A as B = A를 B로 정의하다. those unable or unwilling to V = those

who are unable or unwilling to V(관계대명사 + be 생략, 형용사구 후치). because of + 명사구. well-founded = 근거가 충분한(복합 형용사).

- **Either they go far enough toward stricter border control to undercut public support for far-right parties, or they risk losing not only that battle, but all the other values threatened by anti-immigration governments as well** : Either A or B = A하든지 B하든지. far enough ... to V = ~할 만큼 충분히. risk + -ing = ~할 위험을 무릅쓰다. not only A but (also) B ... as well. threatened by = 과거분사 후치.
- **it was not Merkel the idealist, but Merkel the political realist who told the German parliament that Europe faces many challenges** : It was not A but B who ~ = ~한 것은 A가 아니라 B였다(강조 구문, 사람이라 who). Merkel the idealist = 이름 + 동격 명사(이상주의자로서의 메르켈). faces = 발언 내용을 지금의 사실로 전달한 현재형.
- **"but that of migration could become one that determines the fate of the European Union"** : that = the challenge(앞의 challenges를 받아 반복을 피하는 대명사, that of migration = 이주의 도전). one = a challenge. that determines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one, 단수 → determines).
- **inspirational as the proclamation of an unlimited right to asylum may be, in the last resort, rights must have a limit** : 형용사 + as + 주어 + 동사 = ~이 아무리 …하더라도(양보, = though the proclamation may be inspirational). in the last resort = 결국, 최후에는. must = 당위.
- **it has become difficult for tribunals and courts to determine who is a genuine refugee, as defined by the UN Convention, and who is a well-coached migrant** : 가주어 it + 진주어 to determine, for ~ = 의미상 주어. determine의 목적어 = 간접의문문 두 개(who is ... and who is ...). as defined by = 접속사 as + 과거분사(협약이 정의한 대로).
- **If those who claim asylum in a nearby country were sent to a refugee camp, ..., people smuggling and the resulting deaths in transit would be eliminated** : 가정법 과거(If + were p.p., 주절 would be p.p.) = 지금은 그렇지 않은 일을 제안하며 가정. those who = ~하는 사람들. resulting = 그 결과로 생기는(현재분사 전치).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well-founded	근거가 충분한	justified	groundless
humanely	인도적으로	compassionately	cruelly
aspiring	~이 되기를 바라는	would-be	—
undercut	약화시키다	weaken	strengthen
idealist	이상주의자	visionary	realist
inspirational	고무적인	inspiring	discouraging
resist	저항하다	oppose	accept
affluent	부유한	wealthy	poor
tribunal	재판소	court	—
genuine	진짜의	real	fake
unscrupulous	비양심적인	unprincipled	principled
lethal	치명적인	deadly	harmless
incentive	동기, 유인	motive	deterrent
compassion	연민	sympathy	indifference

내용 일치 기후 변화로 굶주릴 아이와 부모 = 기후 변화에 책임 있는 나라에 망명 신청 못 함 · 협약의 다섯 근거(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 집단 · 정치적 의견) · 경제 난민 의무 없음 · 기후 난민은 생각 못 함 · 딜레마 = 국경 통제 강화 vs 그 싸움과 다른 가치까지 잃을 위험 · 2018년 = 정치적 현실주의자 메르켈 · 이주가 유럽연합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could) · 국경 통제 강화 · 구조된 사람 돌려보내기 · 권리에는 한계(저자) · 유럽 안의 난민은 다른 '듯'(seems) · 2022년 2월 · 2주 · 200만 넘게 · 150만 폴란드 · 폴란드 · 헝가리 정부 = 시리아 난민에 저항 · 우크라이나 난민 환영 · 부유국의 책임(저자) · 진짜 난민 가리기 어려움 · 밀입국 알선 산업 · 안전한 캠프 제안(would) · 국경 통제 유지 · 캠프의 수백만 명에게도 희망. **밑줄 의미** not Merkel the idealist, but Merkel the political realist = 원칙보다 정치적 결과를 따지는 지도자로 말했다는 것 / in the last resort, rights must have a limit = 아무리 고무적인 권리라도 끝내 한도를 둘 수밖에 없다는 저자의 결론 / a well-coached migrant = 난민 심사에서 할 말을 미리 코치받은 경제적 이주민 / They too need to be given hope = 국경에 닿은 사람만이 아니라 캠프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 178쪽 ¶3 they go = 인도적으로 대하려는 정치 지도자 / 179쪽 첫 줄 many of them · they do = 부유국.

> **한 줄 요약** 난민 협약은 경제 난민과 기후 난민을 담지 못하고 인도적 지도자들은 딜레마에 놓이며, 저자는 메르켈의 변화에서 권리에도 한계가 있어야 함을 읽고, 가까운 나라의 안전한 캠프와 부유국의 더 많은 수용을 제안한다.

8-3 걸린 것과 실패의 역사 — 리우의 약속, 코펜하겐의 서약, 첫째 모호함 182쪽 ¶1 ~ 183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182쪽 ¶1 ~ 183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82쪽 ¶1 첫 문장	The lives of billions of people, for centuries to come, were at stake … in Paris in November 2015	연도 · 장소
◆	182쪽 ¶1 둘째 문장	The fate of an unknown number of endangered species … also hung in the balance.	밑줄 의미
★	182쪽 ¶2 첫 문장	At the “Earth Summit” in Rio de Janeiro in 1992, 189 countries	도시 · 숫자 — 서답형
▲	182쪽 ¶2 첫 문장	at a low enough level to prevent dangerous anthropogenic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system	enough to — 어법 9번
◆	182쪽 ¶3 첫 문장	no such stabilization has taken place, and without it, climate feedback loops could boost	지칭 it = 안정화
▲	182쪽 ¶3 둘째 문장	With less Arctic ice to reflect sunlight, the oceans will absorb more warmth.	with + 명사 + to V
●	182쪽 ¶3 셋째 문장	Thawing Siberian permafrost will release vast quantities of methane.	어휘 반전: thaw ↔ freeze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82쪽 ¶4 첫 문장	legally binding agreements … for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that have produced most of the greenhouse gases	통합 사고 · 관계절
▲	182쪽 ¶4 둘째 문장	failed to produce a treaty to replace the expiring Kyoto Protocol (which the United States never signed)	형용사적 to부정사 — 어법 9번
●	182쪽 ¶4 셋째 문장	merely asked countries for voluntary pledges	어휘 반전: voluntary ↔ binding
★	182쪽 ¶5 첫 문장	Those pledges came in from 154 countries … fell far short of what is required	숫자 — 서답형 · 빈칸
◆	182쪽 ¶6 첫 문장	The wording was vague in two key respects.	전환 — 두 모호함
★	182쪽 ¶7 첫 문장	cap the increase in average surface temperature at 2° Celsius above the pre-industrial level	숫자 — 내용 일치
★	183쪽 첫 줄	even with a rise of only 0.8°C so far … enough water to cause a seven-meter rise in sea levels	숫자 — 내용 일치
◆	183쪽 첫 줄	for a target of 1.5°C went unheeded, essentially because world leaders thought … politically unrealistic	밑줄 의미 · 지도자들의 판단

내용

2015년 11월 세계 지도자들과 각국 정부의 협상가들이 파리의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만났을 때, 앞으로 여러 세기에 걸친 수십억 명의 삶이 걸려 있었다. 수를 알 수 없는 멸종 위기 동식물 종의 운명도 위태로웠다.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의 '지구 정상 회의'에서 미국 · 중국 · 인도와 유럽의 모든 나라를 포함한 189개국은 유엔 기후 변화 기본 협약에 서명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기후 체계에 대한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막을 만큼 낮은 수준에서 안정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안정화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것이 없으면 기후의 되먹임 고리가 기온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 햇빛을 반사할 북극 얼음이 줄면 바다는 더 많은 열을 흡수할 것이고, 녹는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은 막대한 양의 메탄을 내놓을 것이다. 그 결과 지금 수십억 명이 사는 지구의 넓은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수도 있다. 협약 서명국의 앞선 회의들은 적어도 지금 대기 중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만들어 낸 산업화된 나라들에 대해서는 배출 감축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루려 했다. 그 전략은 흔들렸고(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미국의 비타협도 한 원인이었다), 2009년 코펜하겐 회의가 만료를 앞둔 교토 의정서(미국은 끝내 서명하지 않았다)를 대신할 조약을 내놓지 못하자 폐기되었다. 그 대신 코펜하겐 합의는 각국에 배출을 정해진 양만큼 줄이겠다는 자발적 서약을 요청했을 뿐이다. 주요 배출국을 포함한 154개국이 서약을 냈지만, 그것은 필요한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 서약으로 이룰 것과 필요한 것 사이의 격차를 헤아리려면 모두가 리우에서 받아들인 문구로 돌아가야 한다. 그 문구는 두 가지 핵심에서 모호했다. 첫째, 무엇이 '기후 체계에 대한 위험한 인위적 간섭'인가? 둘째, '막는다'는 말은 어느 정도의 안전을 전제하는가? 첫째 모호함은 평균 지표 기온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2℃로 묶는 배출 수준을 목표로 삼는다는 결정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는 그보다 낮은 상승도 위험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0.8℃밖에 오르지 않았는데도 지구는 기록적인 고온, 더 잦은

극한 기상, 해수면을 7m 높일 만큼의 물을 품은 그린란드 빙상의 상당한 융해를 겪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라고 저자는 말한다. 코펜하겐에서 1.5℃를 목표로 하자는 작은 섬나라 대표들(해수면이 계속 오르면 그 가운데 몇몇 나라는 사라질 것이다)의 호소는 묵살되었다. 무엇보다 세계 지도자들이 그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조치가 정치적으로 비현실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어법

- **The lives of billions of people, for centuries to come, were at stake when world leaders and government negotiators met** : 주어 The lives(복수) → were. for centuries to come = 앞으로 여러 세기 동안(to come = 다가올). be at stake = 걸려 있다, 위태롭다.
- **agreed to stabilize greenhouse gas emissions "at a low enough level to prevent dangerous anthropogenic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system"** : agree to V. a low enough level to V = ~할 만큼 충분히 낮은 수준(enough는 형용사 뒤, to V가 정도를 나타냄). interference with = ~에 대한 간섭.
- **So far, however, no such stabilization has taken place, and without it, climate feedback loops could boost rising temperatures further still** : so far + 현재완료(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음). it = such stabilization. could = 가능성. further still = 한층 더(still이 비교급을 강조).
- **With less Arctic ice to reflect sunlight, the oceans will absorb more warmth** : with + 명사 + to V = ~할 …이 (줄어든) 상태에서. to reflect = ice를 꾸미는 형용사적 to부정사. less + 불가산 명사(ice).
-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that have produced most of the greenhouse gases now in the atmosphere** :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countries → have produced). now in the atmosphere = gases를 꾸미는 부사 + 전치사구 후치(지금 대기에 있는).
- **was abandoned when the 2009 Copenhagen conference failed to produce a treaty to replace the expiring Kyoto Protocol (which the United States never signed)** : was abandoned = 수동. fail to V = ~하지 못하다. to replace = a treaty를 꾸미는 형용사적 to부정사(대신할 조약). expiring = 만료되어 가는(현재분사 전치). which = 목적격 관계대명사(signed의 목적어).
- **To fathom the gap between what the pledges would achieve and what is required, we need to go back to the language that everyone accepted in Rio** : To fathom = 목적의 to부정사(~을 헤아리려면). between A and B에 관계대명사 what절 두 개. that everyone accepted = 목적격 관계대명사(선행사 the language).
- **the pleas of representatives of small island states … for a target of 1.5°C went unheeded, essentially because world leaders thought the measures required to meet such a target were politically unrealistic** : go + 형용사(과거분사) = ~한 상태가 되다(went unheeded = 묵살되었다). 주어 the pleas(복수)와 동사 went 사이가 멀다. required to meet = measures를 꾸미는 과거분사 후치. thought (that) 생략.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t stake	걸려 있는, 위태로운	at risk	safe
hang in the balance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be uncertain	—
endangered	멸종 위기의	threatened	—
stabilize	안정시키다	steady	destabilize
anthropogenic	인간이 일으킨, 인위적인	man-made	natural
feedback loop	되먹임 고리	—	—
thaw	녹다	melt	freeze
uninhabitable	사람이 살 수 없는	unlivable	habitable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legally binding	법적 구속력이 있는	enforceable	voluntary
falter	흔들리다, 주춤하다	waver	—
intransigence	비타협, 고집	stubbornness	flexibility
pledge	서약	promise	—
vague	모호한	unclear	precise
unheeded	무시된, 묵살된	ignored	heeded

내용 일치 2015년 11월 파리 · 수십억 명의 삶 · 멸종 위기종 · 1992 리우 · 189개국(미국 · 중국 · 인도 · 유럽 모든 나라) · 유엔 기후 변화 기본 협약 ·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 · 안정화 '없음' · 되먹임 고리(북극 얼음 · 영구 동토층 메탄) · 살 수 없게 될 '수도'(could) · 법적 구속력 전략 = 산업화된 나라 대상 · 부시 시절 미국의 비타협도 한 원인(partly) · 2009 코펜하겐 실패 · 교토 의정서(미국 서명 안 함) · 자발적 서약 · 154개국 · 크게 모자람 · 두 가지 모호함 · 2℃ 상한 · 많은 과학자 = 더 낮아도 위험 · 0.8℃ · 그린란드 = 7m · 1.5℃ 호소 묵살(지도자들이 비현실적이라 여겨). **밑줄 의미** hung in the balance = 멸종 위기종의 운명이 이 회의 결과에 달려 위태로웠다 / fell far short of what is required = 서약이 필요한 감축량에 크게 못 미쳤다 / went unheeded = 사라질 위기의 섬나라들이 낸 1.5℃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 politically unrealistic = 과학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어렵다고 본 판단 / 182쪽 ¶3 without it = 안정화 · ¶5 they fell = 서약 · 183쪽 첫 줄 some of which = 작은 섬나라.

> **한 줄 요약** 리우에서 189개국이 배출을 안정시키기로 했지만 안정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코펜하겐 이후의 자발적 서약은 크게 모자랐으며, 2℃ 상한으로 첫째 모호함은 풀렸지만 많은 과학자는 그보다 낮은 상승도 위험하다고 본다.

8-4 둘째 모호함과 저자의 답 — 10%의 위험은 받아들일 수 없다 183쪽 ¶1 ~ 184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183쪽 ¶1 ~ 184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83쪽 ¶1 첫 문장	The second ambiguity remains.	전환 — 둘째 모호함
★	183쪽 ¶1 둘째 문장	even if they are all implemented, global carbon emissions will rise from … 50 billion tons … to 55–60 billion tons by 2030	숫자 — 내용 불일치
★	183쪽 ¶1 셋째 문장	to have even a 50% chance of keeping to the 2°C limit, annual carbon emissions need to come down to 36 billion tons	숫자 — 내용 일치
▲	183쪽 ¶2 첫 문장	A report from Australia's National Centre for Climate Restoration is no less alarming.	no less + 형용사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83쪽 ¶2 둘째 문장	a 10% chance of exceeding 2°C, even if we stopped adding further emissions right now (which is not going to happen)	숫자 · 가정
▲	183쪽 ¶3 첫 문장	Imagine if an airline slashed its maintenance procedures to a level at which there was a 10% chance	Imagine if + 과거 · at which
▲	183쪽 ¶3 둘째 문장	could not claim that it had prevented dangerous planes from flying … even if its flights were much cheaper than anyone else's	prevent A from -ing · 가정법 과거
★	183쪽 ¶3 셋째 문장	we ought not to accept a 10% chance—if not many times higher—of exceeding 2°C	요지 · 저자의 결론
◆	183쪽 ¶4 둘째 문장	Developing countries will argue that their need for cheap energy … is greater than rich countries' need … —and they will be right	지칭 6번 · 저자의 동의
★	183쪽 ¶4 셋째 문장	rich countries should aim at decarbonizing their economies as soon as possible, and by 2050 at the latest	숫자 · 저자의 대안
▲	183쪽 ¶4 넷째 문장	They could start by closing down the dirtiest form of energy production, coal-fired power stations, and refuse licenses	start by -ing · 병렬
★	183쪽 ¶5 둘째 문장	the livestock industry is the second largest sourc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head of the entire transport sector	순위 — 내용 일치
★	183쪽 ¶6 둘째 문장	In contrast to the earlier Copenhagen meeting, it was not a complete failure.	요약문 (A)
★	184쪽 첫 줄	there was a consensus that all countries, developed and developing, should play their part	요약문 · 동격 that
★	184쪽 첫 줄	postponed because of the COVID-19 pandemic … held in Glasgow in November 2021 … "phase out" were replaced by "phase down,"	연도 · 도시 · 낱말
★	184쪽 첫 줄	global temperatures will rise by more than 1.5°C, and quite possibly by more than 2°C	요약문 (B) · 단서(quite possibly)

내용

둘째 모호함은 남아 있다.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그랜섬 연구소는 154개국이 낸 서약을 모두 분석해, 그것이 다 이행되더라도 전 세계 탄소 배출이 지금의 연 500억 톤에서 2030년 550억~600억 톤으로 늘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2℃ 한도를 지킬 50%의 가능성이라도 가지려면 연간 탄소 배출이 360억 톤으로 내려와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립 기후 복원 센터의 보고서도 그 못지않게 걱정스럽다. 오늘 대기에 쌓인 배출만으로도, 지금 당장 배출을 더하지 않는다 해도(그럴 리는 없다) 2℃를 넘을 가능성이 10%라는 것이다. 어느 항공사가 정비 절차를 줄이고 줄여 비행기가 안전하게 비행을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10%인 수준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자. 그 회사는 위험한 비행기가 날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고, 요금이 다른 어느 회사보다 훨씬 싸더라도 손님을 거의 얻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자는, 위험한 인위적 간섭이 낳을 수 있는 재앙의 규모를 생각하면 2℃를 넘을 10%의 가능성 — 몇 배 더 높지 않다면 — 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개발도상국들은 국민을 가난에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값싼 에너지가 흔히 낭비적인 에너지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는 부유국의 필요보다 더 절실하다고 주장할 것이고, 저자는 그들이 옳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부유한 나라는 되도록 빨리, 늦어도 2050년까지 경제를 탈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가장 더러운 에너지 생산 방식인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닫는 일부터 시작하고, 새 탄광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 또 하나의 빠른 성과는 사람들에게 식물성 식품을 더 먹도록 권하는 데서, 이를테면 육류에 세금을 매기고 그 세입으로 더 지속 가능한 대안을 지원하는 데서 나올 수 있다.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 축산업은 수송 부문 전체보다도 앞선, 둘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원이다. 이는 배출을 줄일 여지가 크고, 그것도 모든 화석 연료 사용을 멈추는 것보다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세계보건기구와 다른 보건 당국들은 가공육과 적색육을 덜 먹으면 암 사망이 줄어드는 이점도 더해진다는 데 동의한다. 그렇게 많은 것이 걸린 파리 회의는 어땠는가? 앞선 코펜하겐 회의와 달리 완전한 실패는 아니었다. 기후 변화의 위험이 가장 큰 몇몇 나라의 요구로, 합의문은 서명국들이 기온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묶고 나아가 1.5℃로 제한하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하게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제 몫을 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당사국들의 서약은 그 목표를 이루기에 부족하다. 파리에서 당사국들은 5년 뒤의 다음 회의 전에 서약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 회의는 2020년에 열려야 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뤄져 2021년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렸다. 석탄 사용을 줄이자는 합의는 중국과 인도의 요구로 'phase out(단계적 폐지)'이 'phase down(단계적 감축)'으로 바뀐 뒤에야 이루어졌고, 실제로 얼마나 줄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일부 나라만 서약을 강화했고, 2021년 말의 서약이 모두 완전히 이행되더라도 지구 기온은 1.5℃보다 더, 어쩌면 2℃보다 더 오를 것이다.

어법

- **concluded that even if they are all implemented, global carbon emissions will rise from their current level of 50 billion tons per year to 55–60 billion tons by 2030** : even if + 현재(조건, 직설법) = ~하더라도. they = the submissions(서약). all = they와 동격(모두). rise from A to B. by 2030 = 2030년까지.
- **The level of emissions in the atmosphere today already means that we have a 10% chance of exceeding 2°C, even if we stopped adding further emissions right now (which is not going to happen)** : 주어 The level(단수) → means. even if + 과거(stopped) = 사실과 다른 가정. stop + -ing = ~하기를 멈추다. which = 앞 절 내용을 받는 계속적 관계대명사(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 **Imagine if an airline slashed its maintenance procedures to a level at which there was a 10% chance that its planes would not safely complete their flights** : Imagine if + 과거 = ~한다고 상상해 보라(가정). at which = there was a chance at the level(전치사 + 관계대명사). a chance that ~ = 동격 that절(~할 가능성).
- **The company could not claim that it had prevented dangerous planes from flying, and it would find few customers, even if its flights were much cheaper than anyone else's** : prevent A from -ing = A가 ~하지 못하게 막다. had prevented = 주장 시점보다 앞선 일(과거완료). few = 거의 없는. anyone else's = anyone else's flights(명사 생략). much + 비교급.

- **we ought not to accept a 10% chance—if not many times higher—of exceeding 2°C** : ought not to + 원형 = ~해서는 안 된다(not의 위치는 to 앞). if not ~ = ~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쩌면(10%, 어쩌면 그 몇 배). a chance … of -ing — 사이에 대시 삽입.
- **Developing countries will argue that their need for cheap energy to lift their people out of poverty is greater than rich countries' need to maintain their often wasteful levels of energy consumption—and they will be right** : that절 주어 their need(단수) → is. to lift · to maintain = need를 꾸미는 형용사적 to부정사. 첫째 · 둘째 their(their need · their people)와 they = 개발도상국, 셋째 their(their often wasteful levels) = 부유국. will be right = 그 주장이 옳을 것(저자의 판단).
- **They could start by closing down the dirtiest form of energy production, coal-fired power stations, and refuse licenses to develop new coal mines** : start by -ing = ~하는 것으로 시작하다. coal-fired power stations = 앞 명사구와 동격. refuse는 closing이 아니라 could 뒤의 start와 병렬인 원형(could refuse).
- **that agreement was reached only after, at the insistence of China and India, the words "phase out" were replaced by "phase down," and it remains to be seen how much of a reduction will take place** : only after + 절 = ~한 뒤에야. at the insistence of = ~의 요구로(삽입). be replaced by = 수동. it remains to be seen + 간접의문문 = ~는 두고 보아야 한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mbiguity	모호함	vagueness	clarity
implement	이행하다	carry out	—
alarming	걱정스러운	worrying	reassuring
slash	대폭 줄이다	cut	increase
maintenance	정비	upkeep	neglect
catastrophe	재앙	disaster	—
decarbonize	탈탄소화하다	—	—
revenue	세입, 수입	income	expenditure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viable in the long term	unsustainable
livestock	가축	farm animals	—
scope	여지, 범위	room	—
consensus	합의	agreement	disagreement
insufficient	불충분한	inadequate	sufficient
postpone	미루다	delay	advance

내용 일치 둘째 모호함은 남음 · 그랜섬 연구소(런던 정치경제대학) · 154개국 서약 다 이행돼도 500억 → 2030년 550억~600억 톤으로 '증가' · 2℃ 50% 가능성이라도 360억 톤 · 오스트레일리아 보고서 = 지금 멈춰도 10%(멈출 리 없음) · 항공사 비유 → 10%(어쩌면 몇 배)를 받아들여선 안 됨(저자) · 개발도상국의 주장 = 옳다(저자) · 부유국 = 늦어도 2050년 탈탄소 · 석탄 발전소 · 새 탄광 · 육류세는 '이를테면'(perhaps) · 축산업 = 둘째(수송 부문보다 앞) · 암 사망 감소 · 파리 = 완전한 실패는 아님 · '훨씬 아래' 2℃ · 1.5℃ 노력 · 모든 나라의 몫 · 서약 부족 · 5년 뒤 → 2020 예정 · 코로나로 미뤄져 2021년 11월 글래스고 · 중국 · 인도의 요구로 phase down · 1.5℃ 넘고 2℃도 넘을 '수도'(quite possibly). **밑줄 의미** if not many times higher = 10%는 낮게 잡은 값이고 실제 위험은 그 몇 배일 수도 있다 / could not claim that it had prevented dangerous planes from flying = 위험을 10%나 남겨 두고 '막았다'고 할 수 없다 — 리우의 'prevent'에 대한 저자의 답 / not a

complete failure = 코펜하겐보다는 나았다는 제한된 평가 / it remains to be seen = 석탄 합의의 실제 효과는 아직 알 수 없다 / 183쪽 ¶3 its planes = 항공사 · ¶4 they will be right = 개발도상국 · They could start = 부유국.

한 줄 요약 서약이 다 이행돼도 배출은 늘고, 오늘 멈춰도 2℃를 넘을 가능성이 10%이므로 저자는 항공사 비유로 그런 위험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보며, 부유국의 빠른 탈탄소를 대안으로 내놓고, 파리 회의는 완전한 실패는 아니지만 서약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8-5 사례와 근거, 저자의 판단 — 툰베리의 분노와 총알 두 발의 러시안룰렛 185쪽 ¶1 ~ 186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185쪽 ¶1 ~ 186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85쪽 ¶1 첫~둘째 문장	This is all wrong!" These words begin the most powerful four-minute speech I have ever heard.	저자의 평가 · 최상급 + 현재완료
★	185쪽 ¶1 셋째 문장	at the United Nations Climate Action Summit in September 2019 … attended by an estimated six million people	연도 · 숫자 — 서답형
★	185쪽 ¶2 첫 문장	predominantly the young people who will have to cope with more of the costs of climate change than the world leaders	툰베리의 분노가 적절한 까닭
▲	185쪽 ¶2 둘째 문장	Her tone of moral outrage was therefore apt, as was the leitmotif of her speech: "How dare you?"	as + V + S 도치 · 어휘 11번
▲	185쪽 ¶2 셋째 문장	She accused the world's leaders of stealing the dreams of the young with empty words.	accuse A of -ing · the + 형용사
◆	185쪽 ¶2 다섯째 문장	"business as usual," coupled with yet-to-be-discovered technological solutions, will solve the problem	밑줄 의미 · 지도자들의 말
▲	185쪽 ¶3 첫 문장	Thunberg justified her outrage by pointing out that the science of climate change has been known for 30 years.	by -ing · 현재완료 수동
●	185쪽 ¶3 둘째 문장	the opportunities for a timely transition to a net-zero greenhouse gas economy slipped by	어휘 반전: slip by ↔ arrive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85쪽 ¶3 셋째 문장	halving emissions over the next ten years would, Thunberg pointed out, give us only a 50% chance of keeping global warming below 1.5°	툰베리의 지적 — 숫자
★	185쪽 ¶4 둘째~셋째 문장	to reduce the risk of exceeding 1.5°C to one in three … 350 gigatons. At the current rate, we will exceed this limit in 2028.	숫자 — 내용 일치
★	185쪽 ¶5 둘째~셋째 문장	Sweden, Morocco, and Lithuania are currently doing the best … The United States is in the bottom five	순위 — 바꿔치기 주의
◆	185쪽 ¶6 첫 문장	The ethical issue is not difficult to adjudicate.	저자의 판단 — 전환
★	185쪽 ¶6 둘째 문장	For affluent countries, which are responsible for most of the CO2 that is now in the atmosphere, there can be no ethical justification	통합 사고 · 계속적 which
◆	186쪽 첫 줄	playing a kind of Russian roulette … load our six-chambered revolver with two bullets rather than just one	밑줄 의미 1순위
▲	186쪽 첫 줄	Nor would the costs, for affluent countries, be in any way comparable to the risks	Nor + 조동사 + 주어 도치
★	186쪽 첫 줄	would bring some transitional costs, but in the long run would save lives and benefit everyone	저자의 결론

내용

'This is all wrong!(이건 완전히 잘못됐어요!)' 저자가 들어 본 가장 강력한 4분짜리 연설은 이 말로 시작한다. 스웨덴의 10대 기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2019년 9월 유엔 기후 행동 정상 회의에서 한 말이고, 추산 600만 명이 참가한 한 주 동안의 전 세계 기후 파업과 행진에 뒤이은 연설이었다. 행진한 사람들은 주로, 툰베리가 연설한 세계 지도자들보다 기후 변화의 비용을 더 많이 감당해야 할 젊은이들이었다. 그러므로 저자는 그녀의 도덕적 분노의 어조가 적절했고, 연설을 관통한 'How dare you?(어떻게 감히?)'라는 주제도 그러했다고 본다. 그녀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빈말로 젊은이들의 꿈을 훔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어떻게 감히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하는가? 어떻게 감히 '평소대로'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기술적 해법을 더하면 문제가 풀릴 것처럼 꾸미는가? 툰베리는 기후 변화의 과학이 30년 동안 알려져 왔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했다. 세계 지도자들이 외면하는 동안 순배출 제로의 온실가스 경제로 제때 옮겨 갈 기회는 흘러가 버렸다. 이제는 앞으로 10년 동안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영웅적인 노력도 지구 온난화를 1.5℃ 아래로 묶을 가능성을 50%밖에 주지 못한다고 툰베리는 지적했다. 그 한계를 넘으면 통제할 수 없는 되먹임 고리가 시작되어 더 많은 온난화, 더 많은 되먹임 고리, 그리고 또 더 많은 온난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툰베리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보고서를 들어, 1.5℃를 넘을 위험을 3분의 1로 줄이려면 지금부터 205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을 3,500억 톤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속도라면 2028년에 이 한도를 넘는다. 기후 변화 대응 지수에 따르면 세계의 어느 정부도 아직 기후 보호에서 '매우 좋음'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금은 스웨덴 · 모로코 · 리투아니아가 가장 잘하고 있고 라트비아와 영국이 그 뒤를 바짝 따른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 이란 · 한국 · 대만과 함께 하위 5개국에 든다. 저자는 이 윤리적 쟁점이 판정하기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 지금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에 책임이 있는 부유한 나라가, 기후 변화로 가장 고통받을 저소득국 사람들보다 1인당 훨씬 높은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계속 내보내는 것을 정당화할 윤리적 근거는 있을 수 없다. 그들에게 1.5℃를 넘는 온난화의 3분의 1 가능성을 떠안기는 것은 일종의 러시안룰렛, 곧 저소득국의 수천만, 어쩌면 수억 명의 머리에 권총을 겨눈 것과 같다. 다만 비유를 정확히 하려면 여섯 칸짜리 탄창에 총알을 한 발이 아니라 두 발 넣어야 했을 것이다. 또 부유한 나라가 치를 비용은 그들이 저소득국에 떠안기는 위험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 깨끗한 경제로 바꾸는 데에는 얼마간의 전환 비용이 들겠지만, 길게 보면 생명을 구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어법

- **These words begin the most powerful four-minute speech I have ever heard** : 최상급 + (that) I have ever heard = 내가 들어 본 가운데 가장 ~한(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경험의 현재완료). four-minute = 하이픈으로 이은 복합 형용사(minute는 단수).
- **They were spoken by Greta Thunberg … and followed a week of worldwide climate strikes and marches attended by an estimated six million people** : 주어 They(= These words)에 수동 were spoken과 능동 followed가 and로 병렬. attended by = marches를 꾸미는 과거분사 후치. an estimated + 수 = 추산 ~.
- **The marchers were predominantly the young people who will have to cope with more of the costs of climate change than the world leaders Thunberg was addressing** : more of the costs … than ~ = ~보다 더 많은 비용. the world leaders (whom) Thunberg was addressing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will have to = 미래의 의무.
- **Her tone of moral outrage was therefore apt, as was the leitmotif of her speech** : as + be동사 + 주어 = ~도 그러했다(as was the leitmotif = the leitmotif was apt, too). 앞 절의 동사 was를 받아 도치.
- **She accused the world's leaders of stealing the dreams of the young with empty words** : accuse A of -ing = A가 ~했다고 비난하다. the young = 젊은이들(the + 형용사 = 복수 보통명사).
- **How dare they pretend that "business as usual," coupled with yet-to-be-discovered technological solutions, will solve the problem?** : How dare + 주어 + 원형 = 어떻게 감히 ~하는가(dare가 조동사처럼 쓰임). coupled with = 과거분사구 삽입(~와 결합된). yet-to-be-discovered = 아직 발견되지 않은(to부정사 수동을 하이픈으로 이은 형용사).
- **To impose on them a one in three chance of warming beyond 1.5°C is playing a kind of Russian roulette** : to 부정사 주어 → 단수 is. impose A on B에서 목적어 A(a one in three chance …)가 길어 on them 뒤로 보냈다. is playing = be + 동명사 보어(~하는 것이다).
- **except that to make the analogy accurate, we would have had to load our six-chambered revolver with two bullets rather than just one** : except that = ~이라는 점만 빼면. to make ~ = 조건의 to부정사(~하려면). would have had to = 가정법 과거완료(그렇게 했어야 했을 것). load A with B. A rather than B.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redominantly	주로	mainly	—
cope with	감당하다	deal with	—
outrage	분노	indignation	—
apt	적절한	fitting	inappropriate
leitmotif	(되풀이되는) 중심 주제	refrain	—
accuse A of B	A를 B로 비난하다	charge A with B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timely	시기적절한	prompt	belated
transition	전환	shift	—
halve	절반으로 줄이다	cut in half	double
uncontrollable	통제할 수 없는	unmanageable	controllable
adjudicate	판정하다	judge	—
impose (on)	(부담을) 지우다	force on	—
analogy	비유	comparison	—
comparable	비교할 만한	equivalent	incomparable

내용 일치 'This is all wrong!' · 저자가 들은 가장 강력한 4분 연설(저자의 평가) · 스웨덴의 10대 기후 활동가 · 2019년 9월 유엔 기후 행동 정상 회의 · 한 주 시위 약 600만 명(추산) · 행진자 = 주로 젊은이 · 도덕적 분노 = 적절(저자) · 'How dare you?' · 꿈을 훔친다 · 30년 · 10년 안에 절반 → 50%(툰베리의 지적) · 되먹임 고리의 위험 · IPCC 보고서(툰베리가 인용) = 3분의 1 · 2050년까지 3,500억 톤 · 2028년 · 기후 변화 대응 지수 = '매우 좋음' 없음 · 스웨덴 · 모로코 · 리투아니아 · 라트비아 · 영국 · 미국은 하위 5개국(사우디아라비아 · 이란 · 한국 · 대만) · 부유국 = 대기 중 CO2 대부분에 책임 · 정당화 불가 · 총알 두 발 · 전환 비용 · 장기적 이익. **밑줄 의미** How dare you? = 젊은이의 미래를 걸고도 할 일을 하지 않는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 / business as usual = 지금까지 하던 대로 / slipped by = 제때 전환할 기회가 쓰이지 않은 채 지나갔다 / a kind of Russian roulette = 다른 사람의 목숨을 건 확률 놀음 / two bullets rather than just one = 위험이 6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보통의 러시안룰렛보다 두 배 / 185쪽 ¶1 They were spoken = 연설의 첫 말 / ¶6 which are responsible = 부유국 / 186쪽 첫 줄 them = 저소득국 사람들.

> **한 줄 요약** 툰베리의 도덕적 분노는 기후 변화의 비용을 더 떠안을 젊은이들 앞에서 적절했고, 저자는 대기 중 CO2 대부분에 책임 있는 부유국의 높은 배출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저소득국에 3분의 1의 위험을 떠안기는 것은 총알 두 발의 러시안룰렛이라고 판단한다.

8-6 물음과 운동, 저자의 결론 —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조건과 새로운 생각 186쪽 ¶1 ~ ¶6

원문 위치 원서 186쪽 ¶1 ~ ¶6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86쪽 ¶1 둘째 문장 이하	Thunberg ended on a positive note: “We will not let you get away with this.	툰베리의 말 — 저자의 주장 아님
★	186쪽 ¶2 첫 문장	Can young people really wake the world to … changing direction?	저자의 물음 — 젊은이가 세상을 깨울 수 있나
◆	186쪽 ¶2 셋째 문장	School strikes will trouble parents, especially parents who then need to arrange child care, but will they influence political leaders?	지칭 they = 학교 파업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86쪽 ¶2 넷째 문장	What can be done to keep climate on the agenda until governments get serious about reducing the risk	keep + O + 전치사구 · get serious about
★	186쪽 ¶3 첫 문장	“Extinction Rebellion,” an international movement that began last year with a Declaration of Rebellion in London, advocates civil disobedience.	소개된 운동 — 저자의 주장 아님
▲	186쪽 ¶3 둘째 문장	calls for thousands of activists to block roads … not just for one day, but for long enough to impose real economic costs	call for + O + to V · long enough to
●	186쪽 ¶3 둘째 문장	all the while maintaining strictly nonviolent discipline even in the face of government repression	어휘 반전: nonviolent ↔ violent
★	186쪽 ¶4 첫 문장	first used as part of a mass movement by Mahatma Gandhi in South Africa and subsequently in India	장소 순서 — 내용 일치
▲	186쪽 ¶4 넷째 문장	resorting to civil disobedience is now widely regarded as courageous and right	동명사 주어 · be regarded as
▲	186쪽 ¶5 첫 문장	is no less wrong than British rule in India … and it is likely to cause harm on a far larger scale	no less A than B · be likely to
★	186쪽 ¶5 둘째 문장	civil disobedience also would be justified if it has a chance of persuading governments to follow the science	주장 1순위 · 조건
★	186쪽 ¶6 첫 문장	There may be other effective forms of nonviolent protest that no one has yet tried.	빈칸 1순위
★	186쪽 ¶6 둘째 문장	standing alone outside Sweden’s parliament holding a sign saying, in Swedish, “School Strike for Climate.”	장소 · True/False — 서답형
▲	186쪽 ¶6 셋째 문장	No one could have predicted that this then-15-year-old girl would … gain a platform from which to address	could have p.p. · from which to V

내용

어떻게 그곳에 이를 것인가? 툰베리는 긍정적인 말로 연설을 끝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대로 넘어가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 바로 지금이 우리가 선을 긋는 곳입니다. 세상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든 말든 변화는

오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어서 묻는다. 젊은이들이 방향을 바꿔야 할 긴급함에 세상을 실제로 일깨울 수 있을까? 부모를 설득할 수 있을까? 학교 파업은 부모들, 특히 그 때문에 아이 돌봄을 마련해야 하는 부모들을 괴롭히겠지만 정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줄까? 정부가 재앙의 위험을 줄이는 데 진지해질 때까지 기후를 의제로 붙들어 두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런던에서 반란 선언으로 '지난해' 시작한 국제 운동 Extinction Rebellion은 시민 불복종을 옹호한다. 이 운동은 수천 명의 활동가가 세계 주요 도시에서 도로를 막고 교통 체계를 멈추게 하자고 요구한다. 그것도 하루만이 아니라 정부와 경제 엘리트에게 실제 경제적 비용을 지울 만큼 오래, 그리고 정부의 탄압 앞에서도 내내 엄격한 비폭력의 규율을 지키면서. 대중 운동의 일부로 시민 불복종을 처음 쓴 사람은 남아프리카에서, 그 뒤에는 인도에서 활동한 마하트마 간디였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지지자는 인종 분리에 맞서 싸운 마틴 루서 킹 주니어였다. 시민 불복종은 다른 형태의 항의와 함께 베트남 전쟁을 끝내는 데에도 한몫했다. 이 모든 예에서 시민 불복종에 기댄 일은 이제 용기 있고 옳은 일로 널리 여겨져, 세계 곳곳에 간디의 동상이 있고 미국에서는 킹의 생일이 공휴일이다. 저자는 정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는 것이 영국의 인도 통치, 흑인에 대한 평등권 거부, 베트남 전쟁 못지않게 그르고, 그보다 훨씬 큰 규모로 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러므로 정부가 과학을 따르고 파국적 기후 변화를 피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도록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면,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아직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효과적인 비폭력 항의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 툰베리가 처음 알려진 것은 스웨덴어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School Strike for Climate)'이라고 쓴 팻말을 들고 스웨덴 의회 밖에 혼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열다섯 살이던 이 소녀가 수백만 젊은이가 지지하는 운동을 일으키고 세계 지도자들에게 말할 무대를 얻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저자는 상황의 긴급함과 급격한 방향 전환의 필요를 가장 잘 전할 방법에 관해 더 혁신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어법

- **Right here, right now is where we draw the line** : where we draw the line = 보어 자리의 명사절(우리가 선을 긋는 곳). 부사구 Right here, right now가 주어처럼 쓰여 '바로 지금 여기'라는 때와 곳을 가리킨다. draw the line = 선을 긋다(더는 용납하지 않다).
- **What can be done to keep climate on the agenda until governments get serious about reducing the risk of catastrophe?** : can be done = 조동사 + 수동. keep + O + 전치사구 = O를 ~에 붙들어 두다. until + 현재(미래 대신). get serious about + -ing = ~에 진지해지다.
- **Extinction Rebellion calls for thousands of activists to block roads and shut down transport systems ..., not just for one day, but for long enough to impose real economic costs ..., all the while maintaining strictly nonviolent discipline** : call for + O + to V = O가 ~하기를 요구하다(block · shut down 병렬). not just A but B. long enough to V = ~할 만큼 오래. all the while + -ing = 그동안 내내 ~하면서.
- **In each of these examples, resorting to civil disobedience is now widely regarded as courageous and right** : 동명사 주어(resorting to ...) → 단수 is. resort to + 명사 = ~에 기대다(to는 전치사). be regarded as + 형용사 = ~로 여겨지다.
- **The failure of governmen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s no less wrong than British rule in India, the denial of equal rights to Blacks, or the war in Vietnam** : no less A than B = B 못지않게 A하다(B만큼 그르다). 주어 The failure(단수) → is. failure to V = ~하지 못함. than 뒤 비교 대상 셋을 나열.
- **So, civil disobedience also would be justified if it has a chance of persuading governments to follow the science and do what is necessary to avert catastrophic climate change** : would + if + 현재 = 열린 조건에 대한 조심스러운 판단(~라면 정당화될 것이다). persuade + O + to V(follow · do 병렬). what is necessary = 관계대명사 what절. to avert = 목적.
- **No one could have predicted that this then-15-year-old girl would start a movement supported by millions of young people and gain a platform from which to address the world's leaders** : could have p.p. = ~할 수 있었을 것이다(부정 주어 →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then-15-year-old = 당시 15세의(복합 형용사, year는 단수). supported by = 과거분사 후치. from which to V = 전치사 + 관계대명사 + to부정사(그곳에서 ~할 무대).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get away with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다	escape punishment for	—
platform	(발언의) 무대	stage	—
agenda	의제	list of issues	—
advocate (v.)	옹호하다	support	oppose
nonviolent	비폭력의	peaceful	violent
repression	탄압	oppression	freedom
subsequently	그 뒤에	later	previously
proponent	지지자	advocate	opponent
segregation	(인종) 분리	separation	integration
resort to	~에 기대다, 의지하다	turn to	—
courageous	용기 있는	brave	cowardly
avert	막다, 피하다	prevent	cause
innovative	혁신적인	creative	conventional
convey	전하다	communicate	—

내용 일치 툰베리 = 긍정적 마무리(툰베리의 말) · 저자의 물음 = 젊은이가 세상을 깨울 수 있나 · 부모 설득 · 학교 파업이 지도자에게? · 의제 붙들기 · Extinction Rebellion = '지난해' 런던의 반란 선언으로 시작 · 시민 불복종 옹호 · 도로 · 교통 봉쇄 · 하루가 아니라 실제 비용을 지울 만큼 · 엄격한 비폭력(그 운동의 요구 — 저자는 소개만) · 간디 = 남아프리카에서 처음, 그 뒤 인도 · 킹 = 인종 분리 반대 · 베트남 전쟁에도 한몫(다른 항의와 함께) · 지금은 용기 있고 옳은 일 · 간디 동상 · 킹의 생일 = 공휴일 · 정부의 실패 = 그 못지않게 그름 · 피해는 훨씬 클 '가능성'(likely) ·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면' 정당화될 것(저자) · 아직 시도하지 않은 방식이 있을 '수도'(may) · 스웨덴 의회 밖에 혼자 · 당시 15세 · 더 혁신적인 생각. **지칭** 186쪽 ¶1 you = 툰베리가 연설한 세계 지도자들 · we = 툰베리와 젊은이들 / ¶2 they convince their parents = 젊은이들 · will they influence = 학교 파업 / ¶4 its most famous proponent = 시민 불복종의 지지자 / ¶5 it is likely = 정부의 감축 실패 · if it has a chance = 시민 불복종 / ¶6 this then-15-year-old girl = 툰베리.

> **한 줄 요약** 젊은이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느냐는 물음 앞에서 저자는 시민 불복종의 역사를 돌아보고, 정부의 감축 실패가 그에 못지않게 그르므로 정부를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면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될 것이라 보며, 툰베리처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새 방식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thics in the Real World [Vol. 8 BORDERS]

범위	The Refugee Dilemma · Paris and the Fate of the Earth · Greta Thunberg (원서 PDF 177~186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Gandhi pioneered civil disobedience as a tool of mass protest, in South Africa and later in India. In America, Martin Luther King, Jr. became its best-known champion in the fight against racial segregation, and, together with other kinds of protest, it helped end the Vietnam War. These campaigns are now widely seen as brave and right: Gandhi has statues across the globe, and King's birthday is a US national holiday. Governments' failure to cut greenhouse gases is every bit as wrong as the refusal of equal rights to Black Americans, British rule in India, or the fighting in Vietnam, and it will probably do far more damage. If civil disobedience had some prospect of convincing governments to act on the science, it would be justified here too.

① Civil disobedience is justified only after it has already succeeded once.
② Climate campaigners should never break the law, whatever governments do.
③ Civil disobedience over climate could be justified if it may persuade governments to act on scientific advice.
④ Governments' failure on climate is a smaller wrong than the injustices Gandhi and King opposed.
⑤ The best way to honor protest leaders is to build statues of them.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refugee Convention has also given birth to a new trade in moving people across borders, a business that is ruthless and often deadly. Suppose that anyone seeking asylum in a neighboring country were placed in a camp where they were safe from persecution and could study and do meaningful work, with affluent nations paying the bills. Then the smuggling trade, and the deaths of people on the move, would vanish. Economic migrants would have less reason to claim asylum, and wealthy countries could take in more refugees straight from the camps while keeping control of their borders. Sending back people who reach our country is painful, even when they go somewhere safe. Yet we owe compassion to the millions waiting in camps, too; they also deserve hope.

① Why Refugees Should Always Be Returned Home
② Safe Camps Nearby: A Way to Defeat Smugglers and Offer Hope
③ The Hidden Profits Affluent Nations Make from Refugees
④ How Economic Migrants Deceive the Courts
⑤ Opening Every Border to Every Asylum Seeker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n Australian body, the National Centre for Climate Restoration, paints an equally worrying picture: the emissions already in the air give us a one-in-ten chance of passing 2°C, even if every new emission stopped today, which will not happen. Picture an airline that cut back on maintenance until each of its flights had a one-in-ten risk of not ending safely. It could hardly boast that it had kept dangerous aircraft on the ground, and even with the lowest fares around, it would attract few passengers. In the same way, considering how catastrophic dangerous human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could be, we should refuse to live with a 10% risk of going beyond 2°C, and the real risk may be several times greater.

① Airlines should spend more on maintenance than they do now.
② Stopping all emissions today would remove any risk of passing 2°C.
③ Australian researchers have exaggerated the danger of warming.
④ Cheap flights are worth a small risk to passengers' safety.
⑤ A one-in-ten risk of passing 2°C is far too high to accept.

4. 밑줄 친 it was not Merkel the idealist, but Merkel the political realist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Leaders who want to treat asylum seekers and other would-be migrants humanely are caught in a terrible bind. Either they tighten border control enough to weaken public backing for the far right, or else they may lose that fight and, along with it, every other value that anti-immigrant governments put at risk. Merkel herself saw this. Before an EU summit on migration in 2018, it was not Merkel the idealist, but Merkel the political realist that warned the German parliament that migration might turn out to be the challenge deciding the European Union's future. She then joined other European leaders in agreeing to tighten Europe's borders and to send people rescued at sea back to the countries they had left.

① Merkel had stopped caring about refugees and now rejected all immigration.
② Merkel spoke as a leader weighing what was politically possible, not as a champion of a limitless principle.
③ Merkel had lost power and could no longer influence European policy.
④ Merkel was repeating her 2015 promise that Germany could do it.
⑤ Merkel was blaming other European leaders for being unrealistic.

5. 밑줄 친 we would have had to load our six-chambered revolver with two bullets rather than just one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ethical question is not a hard one to settle. Affluent countries released the bulk of the CO2 the atmosphere now holds, so nothing can justify their going on emitting far more per person than the people of poor countries, who stand to suffer most as the planet warms. Forcing on those people a one-in-three risk that the world will warm past 1.5°C is a sort of Russian roulette, like a loaded gun aimed at tens or even hundreds of millions in poorer nations. To make the comparison exact, though, we would have had to load our six-chambered revolver with two bullets rather than just one, and the price of a clean economy for rich countries bears no comparison with that risk.

① The danger imposed on poor countries is one in three, twice that of ordinary Russian roulette.
② Rich countries should help poor countries defend themselves.
③ The risk of passing 1.5°C is about one in six.
④ Poor countries will suffer twice as much as rich countries.
⑤ Switching to a clean economy will cost twice as much as expected.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What should be done instead? Developing nations will say that ① their demand for inexpensive power to raise people out of poverty matters more than the desire of rich nations to keep up ② their often wasteful energy habits, and the author thinks this claim is correct. That is why the rich world ought to decarbonize ③ their economies as fast as possible, and no later than 2050. ④ They could begin by shutting coal-fired power stations, the dirtiest way of producing energy, and ⑤ they could refuse permits for new coal mines. Getting the public to switch to more plant-based food could bring another quick gain, since a UN agency ranks livestock farming second among all sources of greenhouse gases.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In July 2015, more than 100,000 migrants reached the EU's borders, and 21,000 landed in Greece in a single August week. Some tourists grumbled that their Greek island holiday now lay in the middle of a refugee camp, but the crisis had far graver consequences: that year over 2,500 people hoping to migrate died at sea in the Mediterranean, most while trying to get from North Africa to Italy. Syria's civil war drove far more refugees into Jordan, Lebanon, and Turkey than into any European country, and in Asia, persecution of Myanmar's Muslim Rohingya minority forced still more people to flee. By late 2014, the UN refugee agency put the number of people forced from their homes at 59.5 million, a record high.

① 2015년 7월 유럽연합 국경에 닿은 이주민은 10만 명에 못 미쳤다.
② 시리아 내전으로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튀르키예 · 레바논 · 요르단에 훨씬 많은 난민이 갔다.
③ 8월 한 주 동안 그리스에 도착한 이주민은 2,100명이었다.
④ 그해 지중해에서 익사한 이주 희망자 대부분은 이탈리아에서 북아프리카로 건너가려 했다.
⑤ 2014년 말 강제로 터전을 떠난 5,950만 명은 그때까지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었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The first vague point was settled when leaders agreed to keep the rise in average surface temperature to 2°C above pre-industrial levels. Many scientists think even a smaller rise is dangerous. Warming of just 0.8°C has already brought record heat and wilder weather, and Greenland's ice sheet, which holds enough water to lift the seas by seven meters, has melted heavily. At Copenhagen, small island states begged for a 1.5°C target, but leaders brushed them aside as politically unrealistic. A study of all 154 national pledges found that, even if every one is honored, yearly emissions will grow from 50 billion tons now to between 55 and 60 billion tons in 2030, while even a 50-50 chance of staying under 2°C requires 36 billion tons.

① 첫째 모호함은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2℃로 묶는 목표로 해결되었다.
② 지금까지 0.8℃ 오른 것만으로도 그린란드 빙상이 상당히 녹았다.
③ 154개국의 서약이 모두 이행되면 2030년 연간 배출량은 360억 톤으로 줄어든다.
④ 코펜하겐에서 작은 섬나라들이 요구한 1.5℃ 목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⑤ 2℃ 안에 머물 가능성을 50%라도 가지려면 연간 배출이 360억 톤으로 내려와야 한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At the 1992 'Earth Summit' in Rio de Janeiro, 189 countries, among ① them the United States, China, and India, signed the UN climate convention and promised to keep greenhouse gas output at a level low enough ② to prevent dangerous human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Yet that has not happened, and without it, feedback loops could push temperatures even higher: with less Arctic ice ③ reflecting sunlight, the oceans will soak up more heat, and melting Siberian permafrost will give off huge amounts of methane. Earlier meetings sought legally binding cuts for the industrialized nations ④ that had released most of the gases already in the air. That approach was dropped after the Copenhagen meeting of 2009 could not deliver a treaty ⑤ replaced the Kyoto Protocol, which was about to expire.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With nationalists and populists demanding that borders (A) [be / were] closed, Chancellor Angela Merkel declared that the basic right of politically persecuted people to asylum has no upper limit, even for those escaping the hell of civil war. She backed her words with deeds. Germany registered 890,000 people seeking asylum in 2015, and in the 18 months that began that September it approved over 600,000 asylum claims. Integrating so many newcomers from such different cultures (B) [was / were] clearly going to be hard, yet Merkel famously announced, 'Wir schaffen das' (We can do it). In the author's view, no German leader's deed, not even Willy Brandt's kneeling in 1970 before the monument to the Warsaw Ghetto Uprising's heroes, has separated Germany from its racist history more (C) [decisive / decisively].

	(A)	(B)	(C)
①	be	were	decisive
②	were	was	decisively
③	be	were	decisively
④	be	was	decisively
⑤	were	was	decisive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Most of the marchers were young people, who will bear a larger share of climate change's costs than the leaders Thunberg was speaking to. Her morally outraged tone was therefore ① fitting, and so was the refrain of her speech: 'How dare you?' She charged world leaders with ② stealing young people's dreams with hollow words, and with pretending that 'business as usual,' plus technologies not yet ③ invented, would fix the problem. She defended her anger by noting that scientists have understood climate change for three decades. While leaders looked the other way, the chance of a timely move to a net-zero economy ④ arrived. Now, she pointed out, even cutting emissions in half within ten years would give us only an even chance of keeping warming ⑤ below 1.5°C.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Civil disobedience may not be the only tool open to climate campaigners. They might also discover powerful kinds of peaceful protest that _____. Thunberg's own story shows why. Her campaign started with one schoolgirl holding a sign, 'School Strike for Climate,' in front of Sweden's parliament. Who would have expected a fifteen-year-old standing alone to end up addressing world leaders, backed by millions of her peers? What is needed now, the author says, is more inventive thinking about how to make people feel how pressing the crisis is and how drastically we must change direction.

① only adults are allowed to use
② are still waiting to be invented
③ have already failed in many countries
④ require the approval of world leaders
⑤ depend on blocking roads in major cities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Two of these countries, Poland and Hungary, had fiercely opposed EU pressure to accept more Syrian refugees, yet they welcomed the Ukrainians.

Refugees from inside Europe, however, seem to be another matter. (①) Within a fortnight of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n February 2022, over 2 million people had fled. (②) About 1.5 million went to Poland, while others headed for Moldova, Romania, Slovakia, and Hungary, and some even for Russia. (③) Is there a workable answer to the dilemma for refugees whom, for whatever reason, neighbors do not receive as they received the Ukrainians? (④) Rich countries have a duty to admit refugees, and many could and should take in more than they now do. (⑤) But as asylum claims have multiplied, courts find it ever harder to tell genuine refugees from well-coached migrants.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Whether the young can jolt the world into changing direction, or even persuade their own parents, is an open question. Parents scrambling for child care during school strikes will be annoyed; whether leaders will be moved is less certain. ① What can keep climate change high on the agenda till governments take the threat of catastrophe seriously? ② Extinction Rebellion, a movement launched in London by issuing a Declaration of Rebellion, offers one answer: civil disobedience. ③ The movement urges activists in their thousands to block roads and halt transport in major cities, not for a single day but until governments and business elites bear real economic costs. ④ The UN refugee Convention places no duty on countries to take in people who flee poverty rather than persecution. ⑤ Throughout, protesters are to remain strictly nonviolent, even when governments crack down.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the author's account, within two months of Merkel's defense of a limitless right to asylum, Polish voters handed power to Law and Justice, an anti-immigrant party.

(A) The next year, Italy's election produced a coalition where the far-right League's Matteo Salvini held great sway. Finally, and least surprisingly, Hungary's Viktor Orbán won office again by a wide margin. Migration played a part, possibly a decisive one, in each of these outcomes.

(B) The next year, Britain voted to quit the EU, and Americans elected Trump. In 2017, a snap election in Austria brought the far-right Freedom Party into a coalition government.

(C) In Germany's federal election that same year, Merkel's Christian Democratic Union suffered an eight-point swing against it, while Alternative for Germany, an anti-immigrant party that had never won a Bundestag seat, became the third-largest party.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So how did the Paris meeting fare? Unlike the earlier meeting in Copenhagen, it was not a total failure. Pressed by some of the nations most threatened by climate change, the parties agreed to hold warming 'well below' 2°C and even to try to stop it at 1.5°C. Even more important, everyone accepted that all countries, rich and poor alike, must help cut emissions. Yet the promises made in Paris are not enough to reach that target. A follow-up meeting, delayed by the COVID-19 pandemic, finally took place in Glasgow in November 2021, but even if every pledge standing at the close of that year is fully kept, the world will warm beyond 1.5°C, and very possibly beyond 2°C.

→ The Paris Conference was more (A) _____ than the Copenhagen meeting in its targets and its call for every country to act, but the pledges countries have made remain (B) _____ to meet those targets.

① successful ..... insufficient
② successful ..... adequate
③ disappointing ..... insufficient
④ disappointing ..... excessive
⑤ binding ..... adequate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Germany registered 890,000 people seeking asylum in 2015 and approved over 600,000 asylum claims in the following 18 months. Within two weeks of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n February 2022, over 2 million refugees had left, 1.5 million of them for Poland. Earlier, in 1992, 189 countries gathered at Rio de Janeiro's Earth Summit had promised to stabilize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s. After the Copenhagen conference of 2009, 154 countries offered voluntary pledges to reduce emissions. In September 2019, an estimated 6 million people joined a week of climate strikes and marches. Thunberg had first become known not for leading a crowd but for standing by herself outside Sweden's parliament.

<QUIZ>

(1) How many asylum seekers did Germany register in 2015?

Answer for (1): _____

(2) Which country did 1.5 million Ukrainian refugees go to?

Answer for (2): _____

(3) In which city was the 1992 Earth Summit held?

Answer for (3): _____

(4) How many countries made voluntary pledges after the Copenhagen conference?

Answer for (4): _____

(5) About how many people took part in the week of climate strikes and marches in 2019?

Answer for (5): _____

(6) Is it true or false that Thunberg's first fame came from leading a large crowd of marchers?

Answer for (6): _____

(7) Outside which country's parliament did Thunberg stand alone?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600,000	N. 6 million
B. True	O. Morocco
C. False	P. 100,000
D. 189	Q. 59.5 million
E. 154	R. Poland
F. Paris	S. Lithuania
G. Rio de Janeiro	T. Germany
H. Hungary	U. 890,000
I. 2 million	V. Italy
J. 21,000	W. 2,500
K. Copenhagen	X. Kyoto
L. Glasgow	Y. Sweden
M. 1.5 million	Z. 350 gigatons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그해 2,500명이 넘는 이주 희망자가 지중해에서 익사했는데, 그들 대부분은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로 건너가려던 중이었다. (독립분사구문(most of them + -ing))

02 어떤 독일 지도자의 어떤 행동도 독일을 인종주의적 과거에서 그보다 더 결정적으로 떼어 놓지 못했다. (부정 주어 + 비교급 / distance A from B)

03 그 아이들도 그 부모들도 기후 변화에 책임이 있는 나라에 망명을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 (Neither A nor B / 형용사구 후치)

04 유럽이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독일 의회에 말한 것은 이상주의자 메르켈이 아니라 정치적 현실주의자 메르켈이었다. (강조 구문 It is not A but B who)

05 무제한의 망명권 선언이 아무리 고무적이라 해도, 결국 권리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형용사 + as + S + V(양보))

06 재판소와 법원이 누가 진짜 난민인지 가려내기가 어려워졌다. (가주어 it / for + 의미상 주어 / 간접의문문)

07 지금 당장 배출을 멈춘다 해도, 우리가 2℃를 넘을 가능성은 이미 10%다. (even if + 가정법 과거 / stop + -ing)

08 그 회사는 위험한 비행기가 날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prevent A from -ing / 과거완료)

09 그녀의 도덕적 분노의 어조는 적절했고, 그녀 연설의 중심 주제도 그러했다. (as + V + S 도치)

10 그녀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빈말로 젊은이들의 꿈을 훔친다고 비난했다. (accuse A of -ing / the + 형용사)

11 정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는 것은 영국의 인도 통치 못지않게 그르다. (no less A than B)

12 정부가 과학을 따르도록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면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될 것이다. (would + if 현재 / persuade + O + to V)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2015년 7월 국경의 이주민 / 8월 한 주 그리스 / 지중해 익사	
시리아 난민이 훨씬 많이 간 세 나라 / 2014년 말 강제로 터전을 떠난 사람	
2015년 독일이 등록한 망명 신청자 / 18개월간 승인	
메르켈의 유명한 말 / 1970년에 무릎 꿇은 지도자	
메르켈의 선언 뒤 두 달도 안 돼 집권한 정당	
2017년 독일 연방 선거 / 처음 의석을 얻어 제3당	
난민 협약에 없는 두 종류의 난민	
2022년 2월 침공 뒤 2주 / 폴란드로 간 사람	
1992년 지구 정상 회의 도시 / 서명국 수	
2009년 회의 / 대신하지 못한 조약 / 자발적 서약	
상한으로 정한 기온 상승 / 지금까지의 상승	
그린란드 빙상이 다 녹으면 / 섬나라가 요구한 목표	
지금 배출 / 2030년(서약 이행 시) / 2℃ 50%에 필요한 수준	
지금 멈춰도 2℃를 넘을 가능성(오스트레일리아 보고서)	
부유국 탈탄소 시한 / 축산업의 배출 순위	

항목	답
미뤄진 회의의 도시 · 때 / 석탄 합의에서 바뀐 말	
툰베리 연설의 자리 · 때 / 시위 참가자(추산)	
IPCC의 한도 / 지금 속도로 넘는 해	
기후 변화 대응 지수 상위 셋 / 하위 5개국에 든 미국 외 네 나라	

4-3. 통합 사고 문제 — 세 편을 잇는 자리

문제

「The Refugee Dilemma」에서 저자는 부유한 나라가 난민을 받아들이는 일을 그 나라가 져야 할 몫으로 보고, 많은 나라가 지금보다 더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고 썼다(아래 문장). 「Greta Thunberg's Moment」에서는 지금 대기 중 CO2의 대부분을 누가 내보냈는가가 부유국의 계속된 높은 배출을 정당화할 수 없는 까닭이 되고, 「Paris and the Fate of the Earth」에서 저자는 개발도상국의 더 큰 필요를 들어 부유국이 먼저, 늦어도 2050년까지 탈탄소해야 한다고 본다. 빈칸에 들어갈 영어 명사 한 단어를 원서에서 찾아 쓰고, 그 근거를 「The Refugee Dilemma」 밖의 두 편에서 하나씩 찾아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해당 편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부유한 나라가 지는 몫: Affluent countries have a _____ to take refugees, and many of them can and should accept more than they do.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